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신임회장은 오리무중 김경원 회장 연말 파티서 퇴임사



이날 초대된 난타 공연팀 들소리는 뛰어난 북연주, 전통과 난타 연주의 혼합으로 참석자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보스톤 한인회 연말 파티 약 400여명 참여해 성황  
뉴욕, 커네티컷 등지서 참석, 보스톤 참석자는 감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회가 개최한 김경원 회장단 마지막 행사인 연말파티에 약 4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10일 보스톤 서쪽 말보로 소재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파티에서 김경원 회장은 이임의 뜻을 밝혔다. 차기 한인회장은 공석인 상태였지만 파티는 여전히 흥겨웠다.

올해말 임기를 끝으로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한인회장직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김경원 한인회장은 이날 연말파티에서 퇴임사를 전달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보스톤의 한 시민으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퇴임사를 통해 고맙고 기억하고픈 사람이 있다며 엄성준 총영사, 유영심 노인회장, 이은주 국

제선교회회장, 한선우 평통회장, 장수인 단장, 전미주 한식세계화김영환 회장, 남진병 사무총장 등에 감사를 전했다. 또 김회장은 "나의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부인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엄성준 보스톤총영사는 "2016년 국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에서도 대선이 치러져서 큰 변화가 있었다. (16년 한해동안) 총영사관은 한미 안보, 문화, 학술협력의 노력을 기울였다. 약 2년 동안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발전에 대해 김경원 회장 수고 감사한다. 희망찬 2017년 맞이 하시길 바란다." 축사로 한인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경원 한인회장은 북미주한식세계화 김영환 회장, 박진영 한인회보 편집장, 남진병 사무총장에 감사 >>2면으로 계속

### 보스톤코리아 30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일을 맞아 30일자를 휴간합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스톤글로벌포럼상 수상

하버드 대학글로벌사이버시큐리티 학회서 발표  
반총장 수여식에 직접 참석 안해...뉴욕서 일정소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스톤글로벌포럼이 선정하는 "평화, 안보 그리고 개발을 추구한 세계 지도자상"을 12일 수상했다.



보스톤 글로벌 포럼의 회장인 마이클 두카키스 전 주지사는 하버드대학 레오후아우스에서 열린 연례 글로벌 사이버시큐리티 학회 첫 날인 12일 아침 반기문 총장을 수상자로 발표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수상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카키스 회장은 보스톤글로벌포럼의 이사 중의 하나인 조셉 나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전 원장 밑에서 반총장이 공부했던 당시를 상기하며 "분석적 명확성과 겸손함 그리고 인내의 아주 드문 조합"이란 나이 원장의 당시 학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TBO PLAY  
보스톤코리아  
무제한 시청 할:  
**\$39.99**

즐거운 연말연사를 Tbo와 함께!  
617-955-9112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www.je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learning.com

# 17일 차기한인회장, 한인회관 이관문제 등 논의

▶▶1면에 이어서

패를 전달했다. 출타중인 유영심 노인회장을 대신해 한미 노인회 윤철호 부회장은 김경원 한인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초대된 난타 공연팀 들소리는 뛰어난 복연주, 전통과 난타 연주의 혼합으로 참석자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음식도 한식과 양식으로 준비되어 선택해 즐길 수 있었다. 장기자랑, 댄스 파티 등도 나무랄데 없었다.

올해 한인회 연말파티에는 그러나 지난해 연말 파티 500여명에 비해 약간 적은 한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에는 뉴욕, 커네티컷 등에서 일부 한인들이 참석하는 등 산토끼 참석자들이 많은 반면 지난해 보스톤 한인 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올해 한인회 파티에는 보이지 않는 등 집토끼 참석자들이 적었다.

한편, 김경원 회장을 비롯한 한인 단체장들 그리고 한인회 고문들은 12월 17일 앤도버 소재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모여 차기한인회장과 한인회관 이관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티에서 김경원 회장(좌)은 이임의 뜻을 밝혔다. 엄성준 보스톤총영사(우)는 약 2년 동안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 발전에 대해 김경원 회장 수고에 감사한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초대된 난타 공연팀 들소리의 공연을 집중해 관람하고 있는 한인들 모습



보스톤 한인회가 개최한 김경원 회장단 마지막 행사인 연말파티에 약 40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editor@bostonkorea.com

## 김경원 회장 퇴임사

한인회를 하면서 고맙고 기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성준 총영사님, 유영심 노인회 회장님, 이은주 국제선교회회장님, 한선우 평통회장님, 장수인 단장님, 전미주 한식세계화김영환 회장님, 곳은 일 싫은 일들을 모두 도맡아 한 남진병 사무총장, 여러 단체장님들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대단히 감사하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스톤 한인사회가 침체되었고 한인회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한인회장은 공식인 상태에서 한인사회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전 한인회장인 김영근 고문으로부터 한인회를 맡아보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주일만에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한인사회 복구를 위하여 철저히 희생, 봉사하고 한인사회의 비전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비전이 없는 한인회의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교포들의 저하된 사기를 위한 행사를 만들었고, 칠공팔공 공연을 시작하여 교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한인의 날을 제정하여 우리 교포들의 자존심을 세웠고, 단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노인들의 효도관광을 통하여 노인분들의 사기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한인의 날 추석맞이 행사를 통하여 교포들의 응집력을 만들어 냈으며, 우천관계로 행사의 아쉬움은 남겼지만 보스톤에서 첫번째 한인의 날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졌으며, 이행사가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9대 한인회장으로서 2년치의 역사를 깨끗이 끝내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보스톤의 한 시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한인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어 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한 한인회 임원진 및 지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보스톤 연말파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고 즐거운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결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스톤 한인회 제 39대 회장 김경원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 주춤

지난해 비해 줄었지만 7월에 비해서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가 2016년 11월 들어 잠시 주춤했다. 2015년 대비 8.3%가 감소한 수치이지만 7월보다는 유학생 수가 오히려 반등했다.

미이민세관단속국(USICE)은 12월 8일 2016년 11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분기별 유학생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학생 수는 74,817명으로 지난 7월에 71,719명에 비해서 약 3천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감소세만 주춤했을 뿐 2015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감소세를 드러냈다.

미국내 전체 유학생수는 1백2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가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은 378,9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출신은 206,582명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들과 현격한 격차로 3위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9.9%가 감소한 사우디아라비아는 4위를 차지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내 유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 순으로 유학지를 선택했다. 한인유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로 16,183명

## 한인유학생수 1년 변화 추이

2015년 11월 : 81,599  
 2016년 03월 : 78,489  
 2016년 07월 : 71,719  
 2016년 11월 : 74,817

미이민단속국 집계 (단위: 명)



이 유학생이며, 뉴욕주에는 11,369명이 유학생이다. 텍사스주에는 4,122명이 있다. 4위인 매사추세츠주는 따로 이민국이 집계하지 않았다.

한편 대학별 유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은 NYU로 15,819명이 재학중이며, 두번째는 USC로 13,570명이 재학중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학은 보스톤 소재의 노스이스턴 대학으로 12,393명이 재학해 전체 3위를 고수했다.

hsb@bostonkorea.com

# 반총장 “유엔 전 직원 노력 대신해 수상한 것”

▶▶ 1면에 이어서  
 생 반총장에 대한 평가를 상기시켰다.

두카키스 회장은 또 반총장이 아시안 국가들에서 동성에 권리 증진에 기여한 점, 사이버 안보에 주력한 점, 세계 시민교육에 앞장선 점, 기후 변화 협약을 위해 노력한 점을 상기하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반총장은 서신을 통해 “유엔 전 직원의 노력을 대신해 수상한 것”이라 감사를 전했다. 그 자신의 10년 임기동안은 계속된 분쟁, 불평등의 증가, 극우주의와 인종차별, 그리고 2차 대전이후 최대의 난민 등의 문제가 있었던 도전의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변명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보스톤 글로벌 포럼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우선 운동을 주도한 것을 인정해 이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은 권리이며 지식의 질을 높여 세계시민의식을 촉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글로벌 포럼은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때 첫째 가난과 배고픔을 줄일 수 있으며 장래 인재를 버리는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스톤글로벌포럼이 선정하는 “평화, 안보 그리고 개발을 추구한 세계 지도자상”을 12일 수상했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수상 소감을 글을 통해 밝혔다.

보스톤글로벌 포럼은 아울러 2016년 반기문 사무총장이 시리아, 캐시미어, 가나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또한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인민군((FARC-EP)이 변형된 평화협약에 이르도록 권장했었다.

에르자 보겔 하버드 석좌교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가들간 평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반총장은 지난 2006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을 이어 8대 유엔사무

총장으로 선정됐으며 이전에는 한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보스톤글로벌 포럼은 신조 아베 일본 수상, 앙겔라 마르켈 독일 수상 그리고 은구엔 탠 텡 베트남 수상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었다.

보스톤글로벌포럼은 지난 2012년 설립되어 유명학자, 세계 전문가와 지도자, 그리고 언론인, 차세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포럼이다. 이 포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을 규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며 세계의 모든 필요한 곳에 더 큰 사회정의와, 광범위한 경제변명으로 이끄는 조건을 만들고 평화와 안보를 전파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hsb@bostonkorea.com

SA+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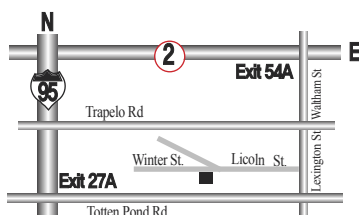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윤가은 감독 '우리들' 벨몬트 영화관 상영

## 벨몬트 월드필름 가정축제에 초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윤가은 감독(34)의 첫 장편 영화이자 화제적인 <우리들>이 1월 14일 벨몬트에서 상영된다.

벨몬트월드필름(Belmont World Film)이 주최해 2017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알링톤, 벨몬트, 케임브리지 등 세영화관에서 개최되는 제 14회 가정축제에 초대되어 14일 3시 15분 벨몬트 소재 스튜디오 시네마(Studio Cinema, 376 Trapelo Road, Belmont, MA)에서 상영된다.

윤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우리들'은 2016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상 후보에 올랐던 수작이다. 이 영

화는 개봉 전부터 해외 우수 영화제의 러브콜을 받으며 높은 관심을 얻었다. 제18회 우디네극동영화제, 제19회 상하이국제영화제 등 총 9개 이상의 전 세계 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들>은 초등학교 4학년 소녀들의 폭풍같은 감정과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가난한 선(최수인)은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데, 여름방학에 부유한 집 아이인 지아(설혜인)를 만나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된다. 개학이 되어 지아가 학교의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선과 멀어지지만, 둘이 생각하던 것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들'은 CJ E&M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이 함께 하는 산학 협력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밀양', '시' 등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이 기획 총괄로 힘을 보탰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윤감독은 "작업 내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리얼함'이었다." 고 밝혔다. 애초 윤 감독이 이창동 감독에게 건넨 트리트먼트는 스릴러 장르에 가까웠다. 윤 감독은 이 감독이 그런 자



윤가은 감독(34)의 첫 장편 영화이자 화제적인 <우리들>이 1월 14일 벨몬트에서 상영된다.

신에게 "이게 진짜니?"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고 했다.

"처음에 생각했던 구조는 누군가 실종되거나 죽거나 하는 등 큰 사건들이 포함돼 있었다. 뭔가 장편은 이래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게 있었다. 뉴스에서 불만한 자극적인 사건을 풀어가는 구조였는데, 다 같아왔고 새로 썼다. 오히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상에서 내부자들끼리 큰 파동을 느끼는 사건을 그리려 했다. 그래서 감정의 깊이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윤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6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상영 당시, 800여 석의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에게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는 공감함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윤가은(34) 감독은 단편 '손님'으로 지난 2011년 단편 영화계의 칸영화제라 불리는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의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윤 감독은 단연 주목받는 신인 감독 중 한 명이다.

2017.1.14 (토) 오후 3:15  
Studio Cinema, 376 Trapelo Rd.  
Belmont, MA  
hsb@bostonkorea.com



2016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상 후보에 올랐던 수작 '우리들'을 감독한 윤가은 감독

## 한미 예술협회 연말파티 29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별링톤 소재 세븐스프링스 커뮤니티룸에서 2016년 연말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연말파티는 지난 8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정욱 박사가 후원해 보스톤한미예술협회에 도움을 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파티다.

김병국 회장은 "연말에 여행이나 가족, 친구들과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이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 한식 저녁 부패가 준비될 예정이나 몇분이 오실 수 있는지 미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밝혔다.

RSVP는 김병국회장 (byung-gkim@yahoo.com)에게 할 수 있다.

장소: 1 Seven Springs Lane, Burlington, MA 01803 (Google map link is here.)

시간: Thursday, December 29, 6:30pm - 9:00pm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연말 선물은 정관장  
행사기간: 12.5 ~ 12.24 까지

잔치 1  
홍삼정 240g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50g  
무료증정  
\$48 상당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120g  
무료증정  
\$100 상당

잔치 2  
홍삼제품 /  
홍삼우유액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30g  
무료증정

BIG SALE 30% OFF  
동인비 전제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주문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8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 2세들이 직접 만드는 한민족 음식 '김치' 맛은?

뉴잉글랜드 고급과정 학생들 김치 만들어 판매  
판매 수익으로 기초과정 말하기 프로젝트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들이 만들어 보는 우리 음식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12월 17일 고급1-3과정인 류민희 담임의 금강반, 황규라 담임의 한라반, 김영순 담임의 백두반이 함께 <김치만들기> 수업을 진행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초급과 중급 및 고급과정 등에서 매 분기별로 한국 전통음식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반에서 주로 만들어 보는 음식으로는 김치 겹절이, 김밥, 불고기 전골, 떡볶이, 인절미, 밀전병, 무쇠박지, 구절판, 다식 등이 있다. 이중 고급과

정의 김치만들기는 한국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국음식 문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이다.

고급과정 리더 김영순 교사는 “매 3년에 한 번씩 ‘김치만들기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번 김치만들기 프로젝트에는 2013~14학년도에 고급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제 그 학생들은 모두 졸업하고 중급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던 후배들이 고급과정으로 올라와 김치만들기 행사를 갖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남일 교장은 이번 고급과정의 ‘김치만들기’ 문화교육 프로젝트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사회에서 “2세

들의 역사문화 프로젝트” 로 연구비를 지원 했고 보스톤코리아의 후원과 학부모회(회장 이미경)와 고급과정 학부모들의 후원으로 실시되는데, 학생들이 만든 김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은 기초과정의 말하기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의 한글교육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이 깊을 것 같다” 고 밝혔다.

지역 최대규모이며 개교 42년으로 가장 오랜 역사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내년 1월 7일부터 봄학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며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전화 (508-523-5389), 이메일 ksneusa@verizon.net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3-2014 학년도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고급반 학생들이 실시한 김치만들기



## 보스톤 새생활센터 독감 및 진료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스톤햄에 위치한 보스톤 새생활센터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내과, 치과 진료 행사를 실시한다.

도착한 순서대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물론 치아검사 및 상담, 그리고 내과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혈액검사를 원하는 분은 아침을 굶고 진료를 와야 한다.

보스톤새생활센터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특별히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환자를 수송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특별 수송이 필요한 환자들은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연말파티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2월 10일 위익 소재 크라운플라자 아트리움에서 총회를 겸한 연말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들은 물론 한국전 참전용사, URI 한인 학생들, CCRI인터내셔널 클럽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모니카리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한 총회에서 박근찬 이사장의 이사회

보고, 이동수 위원장의 건물위원회 보고, 그리고 조봉섭 회장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보스톤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와 참전용사가 축사를 전했다. 한식 부페 저녁식사와 함께 시작한 2부에서는 마이클 잭슨쇼와 댄스 파티가 윤광옥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댄스 파티와 래플 티켓 추첨 등으로 오랜만

에 만남의 자리에 한인들은 한해동안의 회포를 풀며 즐겼다. 조봉섭 회장은 “이 날 파티에 래플 경품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과 단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푸짐한 행복과 많은 복 가득히 채우시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환영사를 하고 있는 조봉섭회장(좌). 이날 행사에는 한인들은 물론 한국전 참전용사, URI 한인 학생들, CCRI인터내셔널 클럽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 뉴잉글랜드 연세대 동문 송년회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동문과 가족 오십여명이 참석하여 각자 그동안 쌓아놓았던 회포를 풀었다. 특히 1950년대에 입학한 선배들부터 2010년대에 입학한 후배에 이르기까지,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동문애를 나눴다.

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이다. 동문회는 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교의 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항상 건강에 힘쓰라” 라는 격려를 하였다. 또한 흥승두(정외 63입) 동문은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만담 실력으로 분위기를 북돋아주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송년모임 준비를 한 김준구(경영 86) 동문회장은 “지난 일년간 연세 동문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리 동문회는 오랜만에 만나도 서로 금세 친해지며, 후배들을

여러 모로 배려해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라며 자랑하였다. 뉴잉글랜드 연세대 동문회는 내년 6월 첫주 토요일 आय�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에는 분기 모임을, 그 외에 소규모 ‘번개’ 모임은 수시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연세대 동문회에 대한 문의는 NewEnglandYonsei@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저녁 식사를 함께 가진 뒤,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다. 최고참 선배인 남궁연(행정 58입) 동문은 “이국 생활에



음대 오세은(음 03), 민조현(음 10) 동문이 회의 시작에 앞서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송년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12월 10일 렉싱턴 소재 아발론 오디토리움에서 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을 갖고 박영철 동문(농대 64)을 차기회장(2017년 7월 - 2018년 6월)으로 선임했다. 동문회는 또 김호웅(법 65) 동문을 신임 이사로 인준했다.

의 보스톤 개최 건에 대해 설명하고, 서병철 동문(약대 90)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하여 작성한 동창회 명부록 제작 경과와 이번 명부록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정태영 회장(문리 71)은 내년 정기총회를 미주평의회(2017년 6월 24일)가 열리는 보스톤에서 함께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철 동문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암연구소 등에서 신약 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하였다. 최근에 은퇴한 후 미주동창회 등 동문회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오세경 동문(약대 61)이 미국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영철/정선주(간호68) 부부 동문은 여행에서 얻은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두 음대 동문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Köchel 넘버. 423)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반가운 만남과 환담으로 웅성웅성거리던 활기는 아름다운 선율이 시작되자 안전처리에 적합한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어졌다.

정태영 회장(문리 71)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가상공간에서는 사회적 외연이 확장되면서도, 정작 고립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훈훈한 페이스 투페이스 휴먼 교감이 갈망된다”며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여 ‘벽적벽적 시끌시끌 불벼는’ 모임이 앞으로 계속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상운 미주총동창회 사무총장(수의 87)은 내년도 미주평의원의



지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서퍽 대학교 한류 동아리에는 한국인이 없다

2014년 결성 되어 2016년 가을학기 정식 동아리 승격 한국인 없이 구성, 케이팝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관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서퍽대학 한류동아리 KCC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미국계 학생, 아시안계 학생, 남미계 학생은 있지만 한국인 유학생 또는 한국인 2세 학생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인 학생회가 없는 대학교에서 한국인 학생회를 대신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외국인들이 있다. 심지어 이 동아리에는 한국인 학생도 없다. 서퍽대학(Suffolk)에 이번 학기부터 정식 동아리로서 출발한 KCC(Suffolk University Korean Culture Club, 회장 나탈리아 샬러니)가 그 주인공이다.

KCC는 2014년 8월 한류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 그룹을 만들 것이 시작이었다. 소녀시대, 싸이 등 미

국 내에서의 한류 열풍은 2010년대 초반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영어로 올라온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류 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모인 소규모의 동호회에서 시작한 KCC가 이제는 어느덧 정식 회원 25명을 넘은 정식 동아리의 규모까지 발전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처럼 한류 동아리에 한인 학생이 한 명쯤은 있을 법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서퍽 대학에 한국인 학생이 적고, 둘째로 취업 관련 문제로 한국 관련 모임보다는 외국과 관련된 모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요즘 한국인 학생들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

KCC의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자

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눈다. 한류 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단연 케이팝과 드라마지만, 요즘은 음악이나 드라마와 같은 한류연예 뿐만 아니라 한국식 화장 및 미용과 흑인사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던 힙합, 그리고 정치사회 분야까지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KCC의 부회장 엘리 듀렛 (마케팅, 경영학, 2학년)씨는 “KCC의 회원들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우리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대통령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류팬 사이에서는 그것이 흥미롭지 않은 정치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KCC멤버들이 관심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삶의 한 면면을 배우기 위한다는 것이다.

KCC는 8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벤트를 송년회를 가졌다. 이들은 서퍽대학교 인근에 있는 서울 레스토랑에 모여 부대찌개와 김치부침개, 순두부찌개, 떡볶이, 비빔밥등을 주문했다. 하나같이 고추장이 들어간 외국인들에게는 매울 것 같은 음식들 뿐이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말로 ‘맛있어요!’ 를 외치며 남김없이 먹었다.

이날 송년회에 참여한 김재용 씨 (교환학생)는 “KCC의 멤버들이 한국학이나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지만 그 열의가 정말 대단하다” 며 본인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KCC의 멤버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아닌 실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 걸렸다면 2-3주는 보통, 감기극성 플루는 아냐

플루백신 접종했다 방심하면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 감기 바이러스가 보스톤을 비롯한 미 전역을 휩쓸고 있다. 지난 몇주간 열이 나지는 않지만 기침이 계속되고 감기 기운으로 아픈 독자가 있다면 결코 지금 혼자만 감기로 아픈 것이 아니라는 말로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정 씨는 2주 이상 기침을 계속해 플루가 아닌가 의심했지만 아니었다. 정 씨에 따르면 “목이 아픈 것으로 시작해서 기침을 계속해 스트랩스룻 테스트를 했고 플루테스트까지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이후 비타민을 더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며 심지어 뮤시넥스 시럽을 2통을 다 비웠는데도 여전히 잔기침과 가래가 괴롭힌다.

이처럼 심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감기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에 따르면 이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차가운 날씨로 바뀌면서 환절기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루는 1월 이후

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의사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활동보다는 물 등 실내공간으로 몰린다. 닫힌 공간에 있다보니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이 자연스레 늘기 마련” 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주 약한 플루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코막힘과 계속 줄었다는 기침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수주동안 증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특별한 약 처방 없이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또한 증세가 완화되면 플루 백신을 맞아 1월 플루 절정기를 대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항생제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약이며 결코 바이러스에 작용하지 않는다.

플루는 1월부터 4월까지 계속되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플루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또한 손을 자주 씻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서퍽대학교 한류동아리 KCC에 한국인은 없지만 멤버들은 연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므로써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당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겨울맞이 시티홀 플라자의 변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시티홀 플라자(City Hall Plaza)가 몰라보게 변신했다. '보스톤 겨울' (Boston Winter)이라는 이름으로 야외공간에 11,000피트 규모의 아이스링크장, 유럽풍의 40여개 기념품점, 페달 동력으로 점화되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스넥과 코코아 가판대 등이 들어서 연말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온화했던 12월 초 날씨로 예상보다 5일 늦어진 12월 7일, 마티 월시 시장의 리본 커팅식을 포함한 공식 오프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시티홀 플라자의 이와같은 변신은 마티 월시 시장의 시티홀 플라자 되살리기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보스톤 겨울'은 그 이벤트 시리즈의 첫 단추로 향후 3년간 시티홀 플라자의 다양한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버크샤이어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스톤 겨울'은 일주일에 7일간 문을 연다. 다음은 시티홀 플라자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아이스링크장**  
11,000피트 규모의 시티홀 플라자 아이스링크장은 보스톤 최초로 주문 설계된 것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개장한다. 1월과 2월에 진행되는 스케이스 강습도 있다. 각 수업은 토요일 오전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습료는 스케이트 대여비 포함 99불이다.

어린이 스케이터들을 위한 팁: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좋아하는 캐릭터의 복장을 입고 스케이트 장을 누빌 수 있다.

오프닝 시간: 일-목 11am-9pm, 금-토 11am-10pm

입장료: 성인 10불, 어린이 8불(5세 미만 무료), 스케이트 대여비 6불, 헬멧은 무료 대여, 10회 사용권 85불

**크리스마스 시장**  
유럽풍 분위기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시장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포함하여 각종 액세서리 등 아기자기한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의류, 정원용품을 취급하는 가게들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식 소세지와 코코아를 판매하는 가판대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것이다.

오프닝 시간: 월-목 11am-7pm, 금-토 11am-8pm, 일 11am-5pm

**산타 하우스**  
산타 클라우스가 미세스 클라우스, 엘프들과 함께 지내는 집을 방문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자. 인터랙티브 앱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좋은아이인지 착한아이인지' 알아보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프닝 시간: 토 11-7 일 11-5

**페달 동력 크리스마스 트리**  
모던한 디자인의 20피트 높이의 초록 크리스마스 트리는 연결된 페달을 밟아서 불을 밝히는 구조이다. 총 4명이 동참해서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어있다. 만약 3초 이상 밝힐 수 있는 강도로 페달을 밟게 되면 '빅토리' 사인에 불이 켜진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초콜릿 스토리**  
산타를 위해 일하는 엘프들이 초콜릿에 대한 교육적이고도 맛있는 30분간의 여정을 안내한다. 초콜릿의 기원과 만드는 제조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초콜릿 시식이다.

오프닝 시간: 월-목 4-7, 금 3-8, 토 11-8, 일 11-5

입장료: 성인 15불, 어린이 10불, 가족 입장 40불

**비노폴리스: 시티 오브 와인**  
런던의 유명 와인전시가 보스톤을 찾았다. 포도에서부터 와인잔까지의 여정을 안내한다. 소믈리에로부터 와인 제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와인을 직접 맛보는 테이스팅도 진행된다.

오프닝 시간: 월-목 4-8, 금 3-8, 토 11-8, 일 11-5

입장료: 패키지 구성에 따라 25-75불까지

sun@bostonkorea.com



## 보스톤 소재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 인근 바닷가 마을 맨체스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Manchester by the Sea)가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후보가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공식 발표된 가운데, 케네스 로너건 감독의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드라마 부문의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 올라 다른 작품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가족 드라마로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유머와 희망을 간직한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탁월한 작품이다. 보스톤에 혼자 살면서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는 리 챌들러(케이스 애플렉)가 주인공으로, 자신의 형 조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16살짜리 조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리의 심적, 물리적 무기력함과 복잡다단한 가족 문제가 드러나게 되며, 사실적이고 꾸밈없이 진행되는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이웃의 이야기처럼 흡입력 있게 묘사되었다.

원래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던 맷 데이먼이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게 되면서 벤 애플렉의 동생 케이스 애플렉이 주인공을 맡게 되었다. 남우주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케이스 애플렉은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12월 열린 제22회 크리티크스 초이스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도 수상에 성공하여 트리플 크라운에 등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보스톤을 소재로 한 영화 피터 버그 감독, 마크 월 버그 주연의 '패트리엇 데이' (Patriots Day)와 벤 애플렉 감독, 각본, 주연의 '리브 바이 나이트' (Live By Night)가 수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끝내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2017년 1월 8일 동부시각 저녁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도 알려진 이 시상식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영화상으로 할리우드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개최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이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 Stars Review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781.729.8868 (한국어 문자 가능)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오늘만 사는 레드삭스, 거물급 대거 영입

셋업맨 우에하라 보내고 세일, 손버그, 모어랜드 영입  
양키스 GM, "레드삭스는 야구계의 골든스테이트" 경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턴 레드삭스는 메이저리그의 골든스테이트 위리어스다". 뉴욕 양키스 단장 브라이언 캐시먼의 레드삭스에 대한 평가다. 스토브리그가 시작되자마자 연이은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레드삭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트레이드로 최강 선발 세일, 확실한 볼펜 손버그, 그리고 골든 글러브 수상자인 1루수 모어랜드가 레드삭스로 새 동지를 틀었다. 연이은 대형계약에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 단장 브라이언 캐시먼은 레드삭스를 미 프로농구의 스타군단 골든스테이트 위리어스에 비유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강 선발 세일 영입, 쉬어갈 틈이 없다  
한 팀의 에이스와 2선발을 흔하든 원투펀치라고 말한다. 팀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선발투수들을 일컫는 말이다. 레드삭스는

**2017년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 예상 라인업**

포수 샌디 레온 (7홀런 .310)  
1루수 미치 모어랜드 (22홀런 .233)  
2루수 더스틴 페드로이아 (15홀런 .318)  
3루수 파블로 산도발 (부상)  
유격수 젠더 보가츠 (21홀런 .294)  
좌익수 앤드류 베네티 (2홀런 .295)  
중견수 재키 브래들리 (26홀런 .267)  
우익수 무키 베츠 (31홀런 .318)  
지명타자 핸리 라미레스 (30홀런 .286)

1선발 크리스 세일 (17승 10패 3.34)  
2선발 데이빗 프라이스 (17승 9패 3.99)  
3선발 릭 포셀로 (22승 4패 3.15)  
4선발 스티븐 라이트 (13승 6패 3.33)  
5선발 드류 포머란츠 (11승 12패 3.32)  
셋업맨 타일러 손버그 (13세이브 2.15)  
마무리 크레이 킴브렐 (31세이브 3.40)  
(\* 괄호 안=2016시즌 성적, \* 굵은 표시=16시즌 후 영입)

이미 데이빗 프라이스(17승 9패 3.99)와 사이영 상 수상자 릭 포셀로(22승 4패 3.15)라는 리그 최강 수준의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이트삭스의 좌완 에이스 크리스 세일마저 영입하면서 쉬어갈 수 없는 쓰리펀치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 시즌 성적으로 1, 2, 3선발 합쳐 무려 54승 (23패)인데, 레드삭스의 3선발이라면 다른 팀이 에이스를 맡을 수 있는 수준이다.

레드삭스가 세일을 데려왔지만 유망주를 4명이나 내주는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쿠바 출신의 몬카다는 최고의 유망주로 꼽힌다. 1995년생인 요안 몬카다는 지난 시즌 중반 MLB 유망주 순위 1위에 올랐었다. 올해 AA에서 AAA를 건너 뛰고 메이저 리그 8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유망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몬카다는 화이트삭스가 올 시즌 영입한 브렛 라우리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줌에 따라 즉시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예측도 들려온다. 그 외에도 마이클 코팩, 루이스 바사베, 빅터 디아즈 등 보스턴 팜 유망주 순위 10위 내에 꾸준히 들었던 선수들이 몬카다와 함께 팀을 옮겼다.

손버그 영입으로 볼펜 강화, 우에하라는 시카고로

레드삭스는 세일의 영입에 앞서 밀워키의 볼펜투수 타일러 손버그의 영입을 위해 1대 4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레드삭스는 이번 트레이드를 위해 주전 3루수 트래비스 쇼(26)와 2명의 유망주, 그리고 추후지명투수를 밀워키로 보낸다. 손버그는 2012년 MLB에 데뷔, 통산 144경기, 219 2/3이닝, 방어율 2.87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 시즌에는 데뷔 이후 가장 많은 67이닝을 소화하며 방어율 2.15, 피안타율 0.162를 기록했다. 제레미 제프레스가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



레드삭스는 17승 선발투수 세일을 비롯하여 우에하라와 오티즈가 빠진 전력누수를 막기 위해 손버그와 모어랜드를 영입했다. (사진출처=메트로)

이드된 이후로는 마무리 역할을 맡아 13세이브를 올렸다. 이로써 레드삭스는 우에하라를 대신하여 8회를 책임질 볼펜 투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레드삭스는 작년 리그 최강의 마무리 크레이 킴브렐을 영입하면서, 팀 마무리였던 우에하라를 셋업맨으로 내려 투수진 강화를 노렸다. 2013년 보스턴으로 이적 후 79세이브를 기록했던 우에하라는 올 시즌 부상과 슬럼프로 레드삭스에서 가장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부터는 11경기 연속무실점을 비롯해 클리블랜드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두 번 등판해 전부 무실점으로 막는 저력을 보였다.

그의 후반기 활약에도 불구하고 레드삭스에서 그의 위상은 좁아져갔다. 야구선수로서는 은퇴시기를 넘은 41세의 나이와 이에 따른 부상의 우려로 그의 위상이 축소되었다. 6일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브 돔브로스키 보스턴 사장은 "우에하라가 새로운 계약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 고 말했고, 이

레드삭스는 지체없이 밀워키 브루워스의 마무리 타일러 손버그를 영입했다. 손버그의 영입으로 더욱 더 입지가 좁아진 우에하라는 올해 우승팀인 시카고 컵스(1년 600만 달러)로 새 동지를 틀었다.

큰 손 영입의 피날레는 1루수 미치 모어랜드 레드삭스의 황제 데이빗 오티즈가 은퇴하면서 서 자리가 빈 1루수/지명타자 자리는 미치 모어랜드가 메꾼다. 레드삭스와 FA 1년 계약을 체결한 모어랜드(550만 달러)는 2010년 MLB 데뷔 첫 해부터 지난 시즌까지 줄곧 텍사스 소속으로 뛰어왔다. 비록 지난 시즌에는 타율 .233으로 오티즈의 성적과 비교하면 타율면에서 한참 모자란 성적이지만, 매년 20홀런은 기록하는 일발장타가 있고, 특히 수비면에서는 올해 골든 글러브를 차지할 정도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준다. 이에 레드삭스는 올해 1루수로 전향한 핸리 라미레스를 지명타자로 돌려 수비의 안정과 공격의 극대화를 꾀할 계획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두통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 ③ 비염, 알레르기, 천식, 스트레스 장애
- ④ 만성 편두통, 비만, 과체중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 ⑧ 노인 재활치료로 건강하게 노년 생활하기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hwa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마리화나 법안 시행돼도 불법인 것들

## 아직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불법 거리에서는 마리화나 피울 수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1월 8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0시를 기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성인이라면 제한된 분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아직까지 의료 목적이 아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 판매점이 생기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마리화나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합법이 된 것들과 여전히 불법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 합법인 것은?

- 집 밖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 개인 용도로 6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집 안에 성인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정당 12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 성인끼리는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줄 수 있으며, 돈을 받고 판매할 수는 없다.

### 불법인 것은?

• 오락용 마리화나는 라이선스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판매될 수 없다.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관리할 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 적법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구입, 재배, 사용할 수 없다.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간단한 예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듯이 마리화나를 피울 수는 없다. 또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는 마리화나도 사용할 수 없다.

• 학교 건물 및 부지에서는 마리화나 소지가 일절 금지된다.

•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나 기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 열린 상자나 일부 사용된 마리화나 제품은 자동차에 보관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트렁크나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물품상자는 가능하다.

• 마리화나를 집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길거리나 공공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배해야 하고, 보안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집주인이 금지할 경우 세입자는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흡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렌트 계약으로 금지할 수 없다.

•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 구입할 수 없고, 우편으로 구입하거나 보낼 수 없고, 연방 소유의 부동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jsi@bostonkorea.com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길거리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메인 주의 이븐타이드 오이스터 레스토랑이 펜웨이에서 지점을 열 계획이다

## 미국 최고 해산물 레스토랑 보스톤 온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내 최고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이븐타이드 오이스터(Eventide Oyster Co.)가 보스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븐타이드 오이스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미국 내 최고 레스토랑으로 수 차례 선정된 바 있다.

메인 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이븐타이드 오이스터는 지난 주에 매사추세츠 진출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븐타이드가 등록한 상호명 이븐타이드 펜웨이

(Eventide Fenway, LLC.)에서 알 수 있듯이 펜웨이 파크 인근에 자리를 잡을 계획이다.

2012년에 문을 연 이후로 이븐타이드는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자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오이스터 바가 되었다. 이븐타이드는 보도 자료를 통해 펜웨이점은 1321 보일스턴 스트리트에 들어설 예정이고 "간결하면서도 창의적인 해산물 메뉴를 품격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밥,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편, 독특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OUL in Bos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SeoulFoodMarket.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공, 리얼터



**주택,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9K(강추)



# IT 거물들 회동에 자녀들 배석시킨 트럼프...논란 가열

### 트위터는 제외...이모지 복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전격 실시한 실리콘 벨리 IT업계 거물들과의 회동과 관련해 참석자 명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가 애용하고 있는 트위터 등의 경영진은 정작 제외되고 장녀 이반카를 비롯해 성인 자녀들이 모두 참석한 것이 확인되면서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이날 "트럼프의 성인 자녀 세명이 실리콘 벨리 최고 경영진과 회동에 모두 배석해 이해충돌 논란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들 전 관련 논란을 해소시킨다는 명목으로 두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을 상기시켰다.

일명 '테크 서밋'으로 불리는 이 회동은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운 실리콘 벨리 IT업계와의 화해가 목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회동에는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나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트럼프를 강도높게 비판해왔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분위기도 화기에 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 벨리 거물들이 총출동한 자리에는 이반카와 에릭, 도널드 주니어 등 세 자녀와 '비선 실세'로 평가받는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쿠슈너는 테이블 가장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은 세 자녀와 달리 트럼프 바로 건너편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슈너의 양 옆에는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내정자와 척 로빈스 시스코 CEO가, 건너편에는 회동을 주선한 피터 킬 페이팔 창업자 겸 페이스북 이사가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과 사업간 이해 충돌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취임일인 내달 20일 전에 회사를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에게 물려주고 경영에서 일체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당초 15일 열기로 했었던 사업 철수 관련 기자회견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자녀들이 '테크 서밋'에까지 배석하자 민주당은 즉

각 반발했다.

에릭 워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대변인은 회동 몇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부패 행위"라며 계속되는 트럼프 가족들의 국정 개입을 비난했다.

한편, 이날 서밋에는 미국 주요 IT 기업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소통 수단인 트위터는 정작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트위터가 대선 당시 트럼프 측이 요구했던 '사기꾼 힐러리' 등 비난 이모지(emoji) 허용을 거부해 눈 밖에 났다고 귀띔했으나 트럼프 측은 부인했다.

다만 한 인수위 관계자는 트위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과 트위터는 모두 해당 보도와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baebae@news1.kr



테이블 오른쪽에 나란히 앉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 자녀들. 왼쪽부터 에릭, 이반카,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 당선인 건너편에는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내정자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앉았다



## '플라 보텍스가 몰고온 이른 한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북극에서 남하하는 찬기류로 보스톤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 20년래 최악의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보스톤닷컴(Boston.com)은 15일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이 이번 주말 오후 2월 이래로 가장 추운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파는 추위와 더불어 최대 시속 45-60마일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상청은 강풍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토요일에는 눈이 올 확률이 높으며 날씨가 풀림에 따라 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파는 12월 중순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한파의 원인은 플라 보텍스(Polar Vortex)때문으로, 이는 극지방의 찬 공기를 감싸는 강한 저기압 소용돌이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찬 공기는 강한 제트기류 형성과 함께 극지방에 머물게 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약해진 제트기류로 인해 찬 공기가 밀려 들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미 지역은 올겨울 북극 수준의 한파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미 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베리아, 동북아시아와 북유럽에 플라 보텍스로 인한 한파가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극은 찬공기를 잃어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플라 보텍스로 인한 북미 한파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2014년의 기록적인 한파 이외에도 1977년, 1982년, 1985년, 1989년에 발생했다.

플라 보텍스와 관련하여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구 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NBC는 이는 온난화와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5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키신저 "틸라슨 국무 지명은 좋은 선택"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93)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미 정부의 첫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라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중 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단체 '100인 위원회' 행사에 참석, 틸라슨의 국무장관 내정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키신저는 "어느 누구도 국무장관에 요구되는 자격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선택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틸라슨이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4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그가 러시아와 친하지 않았다면 엑손모빌 총수로서 쓸모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우려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키신저는 냉전시대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를 주창하고 미·중 관계 정상화까지 이끌어냈던 미 외교가의 거물급 인사다.

그런 그가 틸라슨의 친(親)러시아 성향을 둘러싼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키신저는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키신저는 트럼프가 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복핵·무역 문제

에 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미·중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중국과 협력할지 대립할지 결정해야만 한다"면서도 "협력하는 방식이 이를 이룰 것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키신저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전 세계가 분열 될 것임을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로 중국을 자극한 데 이어, 지난 11일엔 방송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언, 37년간 이어져온 미·중 관계의 '금기'를 깬 과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양국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키신저는 이날 "전화통화 1회에 미국과 중국이 수십년간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며 과도한 해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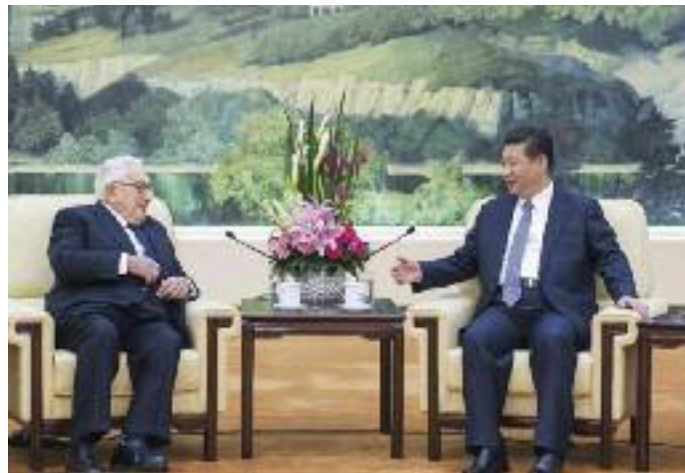
경계했다. 키신저는 트럼프와 차이 총통의 통화에 앞서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바 있다.

키신저는 "이 사안을 큰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키기에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당 원칙이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이 원칙 자체에 존속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당 정책상의 모든 의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신저는 1970년대 중반 쿠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성사시키고, 장기화하던 월남전 종식을 위한 막후교섭을 이끌어 낸 공로로 1973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이달 11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포럼에서도 트럼프에 대해 "미국 현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그에게 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baebae@news1.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 中 트럼프에 경제보복 나서나... "GM 반독점 조사 받아"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태로 미·중 긴장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중국이 제너럴모터스(GM)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한둥(張漢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반독점국장은 14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미국의 한 자동차업체에 반독점 행위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자동차업체가 유통업자에게 고정가격을 지시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관련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했다.

경향(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중국 당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GM을 겨냥해 반독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2014년에도 상하이 GM 등 합작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당시 상하이GM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굴지의 해외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중국 규제당국의 칼날이 상하이GM뿐만 아니라 포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벌금 부과 방침은 트럼프 당선인이 약 40년간 미중관계의 기반이 돼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행보를 내놓은 데 대한 경제보복 차원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한 데 이어 지난 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자국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정상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제소 절차에 공식 착수한 상태다.

제이슨 밀러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공보국장은 차이나데일리 보도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월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만나 해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M 측은 성명을 통해 "GM은 현지 법률과 규제를 온전히 준수하고 있다"며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포드 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 측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yeoulim@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aj.usgft@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기 진품상자 100% 100%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100% 진품상자

문의 617.248.3131 Happydol@ymai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상담 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美 금리인상〉美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은 '잡싸게'...예금이자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위기 이후 2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14일 미국 은행들은 곧바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파이낸셜타임스와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BB&T는 이날 즉시 우대대출금리(prime rate)를 3.5%에서 3.75%로 0.25% 인상했다.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US뱅크, HSBC, 선트러스트, M&T, BMO 해리스는 15일부터 우대금리를 3.75%로 올린다고 밝혔다.

우대금리는 개별 은행이 대기업을 포함한 신용도가 가장 높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신용카드와 소기업 대출 등 다른 대출의 기준이 된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은 순이자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 예금자들이 받는 이자는 당분간 거의 제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행들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를 때 재빨리 우대대출금리를 인상하지만, 예금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아 금리 차로 이익을 챙긴다고 보도했다.

미국 은행들은 1년 전 연준의 금리 인상 때 즉각 대출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많은 대형은행의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1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분기에 평균 0.08%의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기 전인 작년 동기와 같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니한 최고경영자는 지난주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도 예금금리는 그에 맞춰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뱅크레이트닷컴 자료에 따르면 예금금리는 특히 금리 인상 시기의 첫째에 거의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저금리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돈을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는 것과 비슷해졌는데도 예금을 계속하고 있다.

연준 금리 인상으로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학자금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높아진 대출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대부분 고정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는데 이 금리는 현재 바닥 수준이지만 앞으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액이 23만7천달러라면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총 5만 달러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나 모기지 상환 구조변경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금

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소장은 "학자금을 새로 대출받으려는 학생들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면서 금리가 앞으로 몇 년간 1~2% 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이자율도 1~2%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신용카드 이자율은 15~20% 수준으로 모기지나 자동차론보다 훨씬 높다.

자동차 구입 대출은 보통 만기가 수년으로 짧아서 금리가 계속 오르기 전에 소비자들이 차를 살 기회가 있다.

마크스 브러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차를 지금 살지 2년 뒤에 살지 고민한다면 지금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집세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를 수 있다. 주택 구입 비용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이를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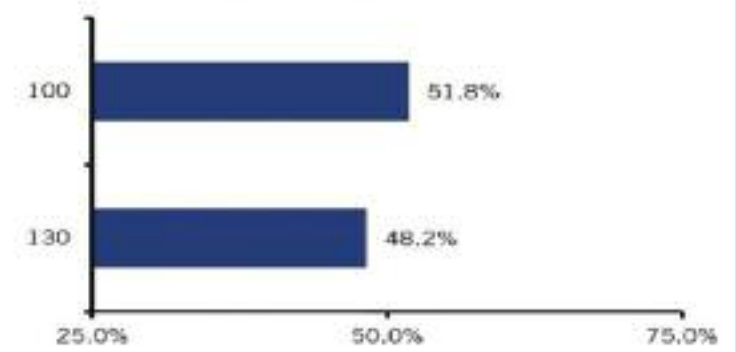
하지만 노동시장 개선으로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기업연구소의 스티븐 올라이너는 말했다.

kimyg@yna.co.kr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FROM DECEMBER 14 2016  
FOR USDJPY WHICH COMES FIRST?



Source: State Street Global Markets

## 달러/엔 전문가 전망 100에서 130까지... "50 對 50"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상승세가 대세로 굳어지는 듯 하다. 그러나 달러/엔 랠리의 추가 연장에 대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금융시장의 최대 테마는 '트럼프플레이션(Trumpflation; 트럼프 인플레이션)'이다. 규제완화와 감세 및 인프라 투자 정책이 성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수혜 자산으로 지목된 주가가 연일 튀어 오르고 달러도 급등했다. 반대로 가장 큰 충격은 국채시장에 미쳤다. 미 대선투표 개표 직후 101엔대로 떨어지며(엔화 상승) 잠깐 불안했던 달러/엔은 트럼프의 수락연설직후 불확실성이 견고히며 105엔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116엔(14일 현재)까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성장 개선에 따른(여기에 정책

금리 인상까지)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될 지, 아니면 달러강세로 인한 미국 제품의 수출경쟁력 둔화를 의식해 결국 달러약세 정책이 나타날 지, 향후 전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분석기관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달러/엔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엇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산타렐리가 가속페달을 밟아 130엔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1.8%였다. 반대로 100엔 환율에 더 빨리 도착할 것이라는 대담도 48.2%로 나타났다.

스테잇은 "이는 달러/엔 장기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시간간이 앞으로 몇 주내 산타렐리의 질주, 조정, 급반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스테잇은 전망했다.

parkbw@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랑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톤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언제나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랑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랑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찜닭 소스	파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제육볶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랑돌

파랑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Newton 2 Family \$748,900**  
 2700 sq ft, 3 bedrooms, 2.5 baths, 2 car garage, finished basement,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steel appliances.



**Newton \$1,300,000**  
 2700 sq ft, 4 bedrooms, 3.5 baths, 2 car garage, finished basement,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steel appliances.



**Newton \$1,299,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부가시설 6000 sq ft, 대지면적 16000 sq ft, 4 bedrooms, 3.5 baths, finished basement,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steel appliances.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넓기드문 현명통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허숙해가여 좋은 위치.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집, 방5개, 화장실 2.5개, 부가시설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ardwood flooring.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부가시설 470sq ft,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steel appliances,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steel appliances.



**Woburn \$1,360,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넓은 땅-4개 화장실 4.5개, 부가시설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매우 바쁜 최고의 학교, 완벽한 조경.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urn, MA

# "靑, 대법원장 · 이외수씨 사찰"...조한규 폭로 '일파만파'

(서울=뉴스1) 심언기, 안대용, 김정률, 서미선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 대법원장 및 민간인 사찰, 정윤희씨의 부총리급 공직인사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주장,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뿌리까지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수 있다.

◇대법원, 사찰 의혹에 '부글부글'... 사실이면 그냥 못 넘어가

이해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 사장이 구한 17개 파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게 생각나는걸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며 "삼권분립의 붕괴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을 폭로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닌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2014년 춘천지법 원장인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

런 것을 포함한 두 건 내용이 사찰(관련) 문건"이라고 법원장급에 대한 청와대 사찰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사찰을 의심하게 하는 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라고 향후 특검에서 철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 관계자는 "일단 사찰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 상황이면 나중에 사찰 문건이 사실인게 드러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 같다"고 대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수 작가 누구 만나나'... 민간인도 사찰 의혹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 저명한, 이름만 대면 금방이라도 아는 인사도 나오는가"라고 묻자, 조 전 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분이 이외수씨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전 사장은 "네"라고 시인했다.

이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최

성준 현 방통위원장)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 운동과 관용차 사적 이용, 이외수 작가와 어디 함께 다니는건지 외 다른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사장은 "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흥경식이 김기춘에게 보고하고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조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이 작성된 시점과 관련해서 "2014년 1월6일 (청와대에)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총리급 공직자가 정윤희에 인사청탁'...부총리는 누구?

조 전 사장은 최순실씨와 이혼하기 전까지 '비선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희씨가 인사청탁을 받았으며 폭로를 이어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윤희가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수역원의 수수의혹이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금액은 7억인가"라고 묻자, 조 전 사장은 "그건 정확히 제가...(모르겠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

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현직에 있나"란 질문에 조 전 사장은 "네"라고 했고,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밝히는게 도리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엔 "문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제가 취재 중에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신설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현재는 유일호 부총리가 재임하고 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11월 신설됐다. 황우여 전 의원이 초대 부총리를 지냈고, 이어 이준식 부총리가 현직에 있다.

◇'정윤희 문건' 보도 이후 전방위 세무조사·인사 압박

조 전 사장은 '정윤희 문건' 보도 이후 <세계일보>에 대한 정권의 인사압력 및 세무조사 협박도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희 문건) 보도가 나간 직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돼 있듯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세계일보 정정보도 검토, 세계일보 세무조사, 명예훼손 고소, 세계일보 압수수색, 사장 교체 등이 나온다"고 지적에, 조 전 사장은 "맞다"고 말했다. conki@news1.kr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차청문회, 유령진료? 의혹 눈덩이... "차이 응답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조규희, 서미선, 김정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속사원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필러 시술 의혹 등 비선진료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대통령 주치의·자문의 등 의료인들이 대거 참석한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에 출입했던 의료진들이 박 대통령에 어떤 시술과 어떤 주사를 놓았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최순실씨의 단골인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에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김 전 자문의는 자문의로 위촉되기 도 전 이른바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해 박 대통령에게 두세 차례 태반주사를 놔줬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라이브이라는 태반주사를 피하주사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배석자 없이 단독 진료도 한 것으로 시인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은 김 전 자문의 뿐만이 아니었다. 최씨의 단골인 김영재 원장은

"2014년 2월 저녁께 처음으로 청와대 출입을 했으며, 이후 부인과 함께 박 대통령을 몇 번 방문했다"며 5~10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원장을 최순실에 소개시켜준 것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였고 그 인연으로 청와대까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안면시술은 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도 않은 의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몸에 손을 댄 것은 명백한 위법 사례"라며 한탄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피멍이 집중 조명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지난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 사진을 제시했는데 사진에는 박 대통령의 얼굴에 피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김 의원은 "사진을 보면 여섯 군데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나온다"며 "그해 5월 13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두고 찍은 사진을 보면 대통령 얼굴에 피멍 자국이 선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보스턴의 한인교포들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오에는 허버드 스퀘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고, 3시에는 보스턴 한인교회에서는 독립운동가 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준 목사의 시국간담회가 열렸다

김 원장은 이 사진을 보고 "이것은 필러 같다"고 말했다가 "주름살이 있는 것으로 봐선 시술한 것 같진 않다"고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는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를 맡았던 의료진은 모두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도 "모른다"고만 답했다.

결국 시술한 흔적은 있으나 시술자가 없는 '유령 시술'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를 지냈던 조여옥 대위가 시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당 손혜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박 대통령에 가글을 전달한 것을 놓고 "시술로 인해 양치를 못할 경우 의료용 가글을 많이 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9월께 최순실씨 언니인 최순득씨의 이름으로 차음의원에서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도 뽑은 혈액은 있으나 혈액을 뽑은 사람은 없었다.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상만

자문의 등은 "누가 대통령 혈액을 뽑았느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답해 공분을 샀다. 대통령의 혈액 정보는 2급 비밀이다.

이 같이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아울러 특조위원들이 수시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증인들의 증언도 오락가락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sanghwi@news1.kr

#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DEC. 16 - DEC. 22, 2016

## YUMMY KOREAN TEMPURA

Anything FRIED is never wrong. It's an all-time favorite Korean street food. So crunchy, sweet and savory. You can easily make these at home! Come follow us!



바삭바삭한 튀김은 항상 좋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각종 튀김요리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ZESPRI Sun Gold Kiwi 체스프리 썬골드 키위 box <b>\$21.99</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lb <b>\$1.49</b>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8oz/box <b>\$24.99</b>	Gabo 우엉 lb <b>\$1.99</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 - Max. <b>\$0.99</b>
Lotus Root 연근 lb <b>\$1.88</b>	Kabocha 단호박 lb <b>\$0.88</b>	Sunchoke 돼지감자 lb <b>\$1.99</b>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lb <b>\$1.49</b>	Ginger 생강 lb <b>\$1.49</b>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등심 lb <b>\$4.99</b>	Pork Hind-on Belly Chunk 수육용 생 삼겹살 lb <b>\$5.99</b>
Beef Ox Tail 생 소꼬리 lb <b>\$10.99</b>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b>\$1.49</b>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돼지 삼육살 lb <b>\$4.99</b>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버터 등심 스테이크 lb <b>\$6.99</b>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lb/5oz <b>\$3.99</b>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 - 30s <b>\$6.99</b>
Premium Sable Yellow Croaker 프리미엄 자반 칠조기 500 - 550/10 lb. box <b>\$65.99</b>	SHIKI Premium Unagi Kabayaki 우나기 10oz/3oz <b>\$8.99</b>
Lobster Tail 랍스터 꼬리 lb <b>\$22.99</b>	Monkfish Tail 아귀꼬리 lb <b>\$3.99</b>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 <b>\$9.99</b>	DONGSUH Maxum Coffee Mix Dongsu Mocha Gold Mix - 100g/2oz box <b>\$12.99</b>
KWANGCHUN Green Seaweed Laver Original - 0.7oz x 100ea/box <b>\$9.99</b>	KADOYA Pure Sesame Oil 계도야 참기름 500ml <b>\$14.99</b>

### HELLO HOME HOLIDAY GIFT GUIDE BIG SALE

따뜻한 연말연시 특가세일

Until JAN. 1st, 2017 At All MA Stores

PULMUONE Premium Rice 중두립 백미 20lb <b>\$19.99</b>	MASSAN Monso Sun Soy Sauce 마산명반 콩고추장 1gal <b>\$9.99</b>	ESENCIA Grapesec Oil 에센시아 브로콜리유 24oz <b>\$4.99</b>	GOMPYO All Purpose Wheat Flour 곰포 올용 밀가루 5.5lb <b>\$3.99</b>	DONGWON Canned Luncheon Meat 동원 런치 미트 통조림 12oz <b>\$2.99</b>
S&B Golden Curry S&B 골든 커리 2.78 lbs. <b>\$2.99</b>	HANDHEIM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생모듬 우동 2.78 lbs. <b>\$2.99</b>	PULMUONE Premium Udon Noodles w/ Katsubushi Broth 풀무원 1종급 키소우 우동 13.5oz <b>\$4.99</b>	KTOWN Outback with Noodles 아웃백 그릴 국수채이-사과 1.27 lb. <b>\$4.99</b>	HAOR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1.27 lb. <b>\$3.99</b>
NESTLE Green Tea KitKat 네슬레 녹차 킷캣 4.7oz <b>\$5.99</b>	HUY/FONG FOODS Sriracha Hot Chili Sauce Snack 휘이퐁 푸드 스페리사사 스페 4.5oz <b>\$3.99</b>	KOMAX Kimchi Container 코맥스 김치용감미 김치통 1.5L <b>\$10.99</b>	Stainless Steel Kitchen Scissors 스테인리스 스틸 키친 가위 <b>\$3.99</b>	20L RUSH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20리터 스테인리스 보온병 <b>\$32.99</b>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size, location or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econ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econd sale item. All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H-MAR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bury,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법조계 사찰 문건 누가 작성했나... "국정원 양식"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대법원장 등 법조인 사찰 폭로 국조특위 위원들, 문건 양식 등으로 국정원 작성 추정

(서울=뉴스1) 김현, 김정률, 서미선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4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장 등 법조계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관련 문건도 공개했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희 문건' 보도 당시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이해훈 새누리

당 의원의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날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 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건의 사찰 문건이 보도가 안된 것"이라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의 작성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서류는 국정원에서 만든 게 맞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저는 (국정원의) 문서 형식이나 그런 내용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그냥 청와대나 경찰쪽이 (아닌가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해당 문건은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국조특위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불법사찰로 국조특위가 만들어졌지만, 회의 2번으로 끝났다"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찰대상으로) 포함됐었다. 조 전 사장이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볼 때 청와대 작성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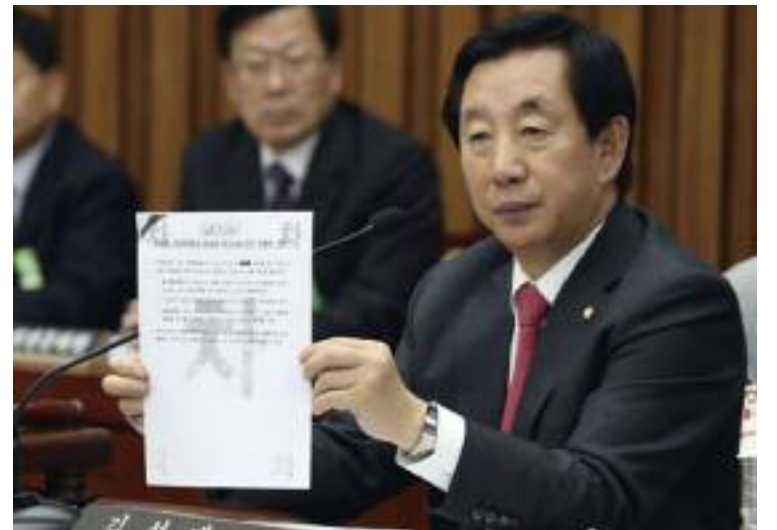
박 의원은 이어 "문건은 과거 시한이 정해졌다. 보안을 표시하는 중요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됐다. 이것은 국정원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손

발인 국정원이 없이 사찰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를 하면 가운데에 글씨가 새겨진다. 그런데 오늘 복사본은 가운데에 글씨가 나온다"면서 "국정원이 역

대 정권에서 매번 국내 문제에 개입해 잘못 행위를 해서 국내 현안에 대한 국정원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gayunlove@news1.kr



김성태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차대통령이 정윤희-최순실 이혼시켜"

"정윤희 문건' 터지자 이혼 권유"  
"김기춘, 최순실 모른다는 건 100% 위증"

(서울=뉴스1) 심언기, 김정률, 서미선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정윤희 문건' 파문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희씨와 최순실씨 이혼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라 많이 취재했다"며 "모 취재원으로부터 2014년 1월6일 정윤희 문건이 보도되고,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한거로 됐고 3월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비선실세가 둘인데 이혼해서 한 사람이 나가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슈퍼파워가 됐다"고 지적하자, 조 전 사장은 "그런 셈"이라고 동조했다.

정 의원은 "조승천 비서관은 문건이 60% 이상 사실이라고 했고 지금 최순실과 정윤희가 비선실세로 드러났는데, 몇 프로 진실이라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조 전 사장은 "거의 90% 이상(진실)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최순실씨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위증한거라 본다. 100% 위증"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박영선, 최순실 '입맞추기' 정황 2차 녹음파일 공개

국조위원 성향 분석 · 대응방침 포함된 K재단문건도 공개

(서울=뉴스1) 조규희, 서미선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국정조사 시작전 여러 의혹을 관련자와 입을 맞추는 듯한 최순실씨의 2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4개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파일 내용을 보면 한 남성이 최씨에게 "네,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전화가 왔다 잘됐냐고 이것을 다 얘기한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최씨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라고 답했다. '국가'는 '수사가'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가 "왜 정현식 총장이 이야기한걸 못막았어?"라고 묻자 이 남성은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동춘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에게 "이것을 보면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뭐가 감추려고 한

사람'이라고 질타하자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어떻게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 분이 막으려했다는건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청문 요청이 오면 다 숨김없이 얘기하겠다고 해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럼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고 답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이라는 케이스포츠 재단 내부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의 내용으로는 직급별 세부적 대응방침과 특검과 국정조사의 일정, 국정조사 위원들의 정치 성향

등이 분류돼 있다.

민주당 박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적색(저격수)로 적혀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안 진행절차 및 대응방침에 관한 문건도 공개됐다.

박 의원은 관련 문건에 '어디서 받았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제가 직접 작성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차 문건의 세부적 내용, 광범위한 내용 등을 지적하며 정 이사장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이 재차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작성 장소, 작성 파일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playingio@news1.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의 위증교사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k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5 Bed  
4.5 Bath  
Asking **\$1,489,000**



**Condo**  
28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동문형의 2 Bed 1 Bath 870 sqft  
Condo 2 parking space  
Asking **\$448,000**



**Condo**  
21 Westlan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BR의 2nd  
handmade Cakes, Best Street Bakery,  
매일 7-9시까지 개하는 21 미팅 룸  
Asking **\$291,000, \$399,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재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700,000**

**LISTINGS**

- 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2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3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4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5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6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7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8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1.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2.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3.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4.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5.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6.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7.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8.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99.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 100. Full Time 24hr/7 Days/24 Hrs. Full Time **SOL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a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임대수익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면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 특검, 김기춘 등 무더기 출국금지...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임박

차 대통령 관저·대기업 등 압수수색 가능성도  
내부구성 모두 마쳐...윤석열, 대기업 수사 이끈다

(서울=뉴스1) 김수완, 이후민, 최동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55)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출국금지 처분을 끝냈다. 조만간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5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 여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하고 강제수사 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정윤희 문건' 유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실장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선상에만 올려놓은 상태였다.

또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준비기간 중에도 출금 등 조치를 할 수 있어 필요한 사항은 기록 검토에 따라 모두 조치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인물이) 한 명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청와대 내 박근혜 대통령 관저, 청와대 경호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관저와 청와대 경호실 등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열쇠로 최근 등장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또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대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역시 필요할 경우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특검보는 "기록 검토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불리 강제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며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밝혔다.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를 위한 준비기간'은 오는 20일로 끝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20일 무렵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기록 검토 등 강제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록 검토는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며 "검토가 끝난 후 팀별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록 검토 작업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모두 끝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현재 내부 구성도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다.

특검팀에는 △최순실씨 등의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미르·K스포

츠재단 등 문화·체육계 국정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대기업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할 수사팀 4곳이 꾸려진다.

각각의 수사팀은 박충근·이용복·양재식 등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끌게 된다. 다만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 이 특검보는 별도의 수사팀을 이끌지는 않는다.

특검팀 합류 시점부터 관심을 모았

던 윤 수사팀장은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대기업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윤석열 수석 과건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검보에 준하는 역할을 맡길 것을) 예상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특검, 수사팀 4개·지원팀 1개 등 구성... 자체 감찰팀도 마련

감찰팀, 105명의 매머드 조직 감안해 '입단속' 역할

(서울=뉴스1) 김수완, 최동순, 최은지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 내부 구성이 14일 상당 부분 완료됐다. 이번 특검팀 규모가 '최대 105명'이라는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한 것을 감안해 특검팀 내에는 내부 '입단속'을 위한 자체 감찰팀도 꾸려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팀이 수사팀 4곳, 수사지원팀(정보팀) 1곳, 사무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지원팀 내부에는 감찰팀도 마련된다.

수사를 담당하게 될 수사팀 4곳은 팀별로 각각 특검보의 지휘를 받게 됐다. 현재 특검팀에는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등 4명이 특검보로 임명돼 있다.

다만 이 특검보는 "특검보가 담당할 수사팀은 특별히 팀을 확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특검보가 담당할 수사는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특검보가 2개 수사팀을 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각 수사팀에는 특검보 1명 외에도 부장검사 1명이 배치돼 수사를 이끌게 된다.

특검 측은 각 수사팀을 맡을 특검보나 수사검사의 이름 역시 밝히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특검보나 검사의 이름이 유출될 경우 수사진행의 공정성과 수사진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지원팀은 수사팀에 대한 정보지원을 담당한다. 특검법에서 특검대상 사건으로 명시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수사지원팀이 수집한다.

또 수사지원팀 내부에는 특검팀 내부 단속을 위한 감찰팀도 마련된다. 특검 관계자는 "숫자가 많아 자체적으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무국은 특검팀의 행정사무를 맡게 된다.

특검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록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 청문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답변 내용이나 언급된 사실관계 역시 향후 수사방향을 참고할 방침이다.

abilitykl@news1.kr

## 특검, 경찰·금융원 파견인력 줄이고 디지털 분석인력 확충

파견공무원 40명도 인선 마무리  
수사팀 4개 구성 등 진용 갖춰...본격 수사 초읽기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파견공무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경찰·금융원 인력은 줄고 첨단수사 인력이 확충됐다.

파견검사에 이어 파견공무원 40명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온 파견공무원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기존 특검과 비교해 경찰과 금융감독원 파견인력은 줄고 디지털포렌식 등 통신내역 분석인력은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 파견은 1명, 금융감독원 파견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과 비교해 새로 체포할 대상이나 계좌추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수사 인력은 늘었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

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디지털 분석팀은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파견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43)이 이 팀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수사 인력이 늘어난 것은 이번 수사의 주요 증거물이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관은 20명 이상의 인력을 확충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수를 모두 채우지 않고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열거했다.

특검팀은 수사팀 4개, 수사지원팀 1개 등으로 구성된다. 각 수사팀은 특검보 1명, 부장검사 1명을 배치해 수사를 이끌게 된다.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주에는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미 어느정도 진용을 갖춘 만큼 공식수사 개시 이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적 관심 집중된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엄정·신속하게 수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sool@news1.kr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샤부샤부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광양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짜장/순두부찌개/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특대찌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광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짜장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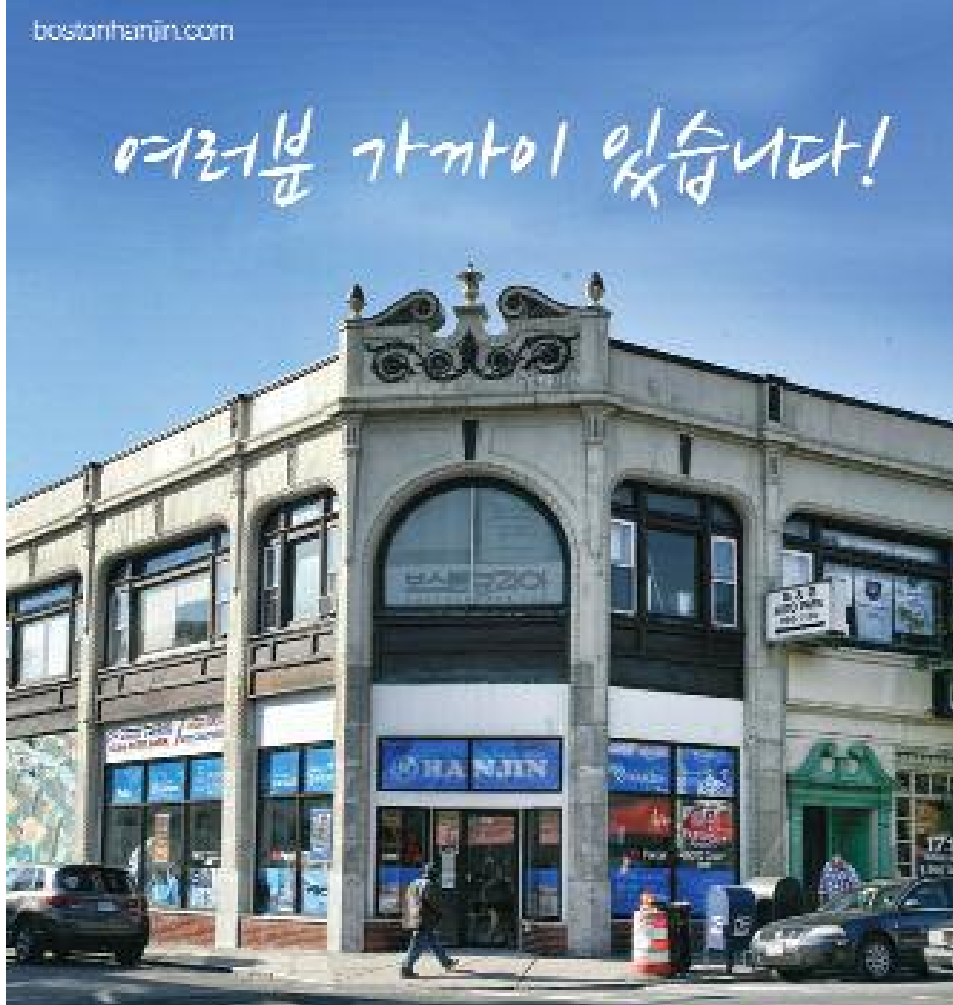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10% OFF**



투정하고 맛있는  
수라 BBQ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드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기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여야정 협치 제자리... 黃대행-丁의장 회동 현안 진전 없어

### 첫 회동서 黃 대정부질문 출석 논란 등 논의 못해 黃대행-국회관계 차질 우려

(서울=뉴스1) 진성훈, 이정우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통과 협조를 강조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 현안들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반쪽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 등의 가동을 통한 협치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주도의 국회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리실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대화를 포함해 33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현재의 엄중한 국정 환경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노력하고 국회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도 "국민들께서 국회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잘 소통하고 협치해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것"이라며 "국회도 정국 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전환 후에도 정 의장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판단하면 작은 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좋은 해결방안도 나올 것"이라며 특히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조만간 선출되면 국회 상황도 더욱 안정돼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도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정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민을 잘 섬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아울러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 경기 침체, 대중국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정 의장은 "국민의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중국의 한국 관광객 축소, 한류 제한 조치, 세무조사 등 한중관계 악화 우려를 전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해 정부 외교를 보완할 뜻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대중국 경제협력도 중요하나 경제협력관계 다변화를 위해 기업들이 다른 주요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투자 등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중동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이 AI 확산 우려를 나타내자 황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오늘부터 매일 AI 일일점검회의를 갖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협조·소통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문제나,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20·21일) 출석 여부 등 예민한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의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문제도 비공개 대화에선 더 이상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특히 앞서 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날 정 의장에게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이라 관측이 나왔었다.

야당에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흥내내지 말라"(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비판하는 등 황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날 오전 허위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별도로 야당 원내대표들을 방문해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구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일축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밖에도 논란이 일어난 경제부총리 교체 여부 등 개각 및 인사문제,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true@news1.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내주 준비기일

### 소추위원·대통령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의견 요청 사실상 탄핵심판 변론절차 돌입

(서울=뉴스1) 안대용, 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과 이정미 재판관(54·16기), 이진성 재판관(60·10기)을 지정하고 사실상 변론절차에 돌입했다.

현재는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주 내에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배보윤 현재 공보관(54·20기)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정권자인 박 소장이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이들 3명의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재판관은 사건의 주심이며 이정미 재판관은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

배 공보관은 "수명재판관을 지정함으로써 준비절차에 회부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준비절차기일 지정 전에 양 당사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19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이날 바로 양측에 의견서를 전자송달했다. 또 이해관계인인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수명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기일이 열릴 수도 있게 됐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지

는 변론의 예행절차다. 현재는 탄핵심판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 공보관은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준비절차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바로 변론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날 중 재판관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집회질서 유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날 오전에도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진행을 논의했다. 재판관회의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열리고 있다.

dosool@news1.kr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 與원내대표 경선, 비박 나경원 vs 친박 정우택 대결 확정

### 비주류-친박 각각 단일후보로...정책위의장은 김세연vs이현재

(서울=뉴스1) 김영신,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류 친박계 정우택 의원(4선·충북 청주시 상당구)과 비주류 나경원 의원(4선·서울 동작구)이 맞붙게 됐다.

정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이현재 의원(재선·경기 하남시)을 러닝메이트로, 나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구)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경선에 임한다.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가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 각각 단일 후보로 낸 것으로, 당내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일전이 예고된다.

친박계 원내대표 후보인 정우택 의원은 충북도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당최고위원 등을 지낸 중진이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김정훈, 홍문종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날 정 의원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메이트인 이현재 의원은 산

업통상자원부 관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을 역임, 19대 국회로 등원해 박근혜정부 정책 입안에 앞장선 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중소기업본부장,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간사, 정책위부의장 등을 지냈다.

비주류 측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를 열고 나경원-김세연 의원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던 나 의원이 다시 나서게 됐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회창 대통령 후보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 한나라당 시절부터 '쇄신파'로 앞장서는 대표적 여성정치인이다.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김세연 의원은 당내 대표적 쇄신파로 비상대책위원, 사무부총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정책위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eriwhat@news1.kr



지나 정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모바일 banking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올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DIF.

**Norcom Mortgage** 마이클 리 모기지  
Norcom Mortgage Corp., Inc. 19962 01/14/17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론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148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loria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의료보험/생명보험/연금보험  
메디케어/상해보험  
스몰 비즈니스 팩케트 패키지  
인슈어런스 브로커

**마이클 리  
종합 보험**

2017년 의료보험 평균 20%이상 인상  
OPEN-ENROLLMENT 의료보험 무료 상담

[www.MyInsuranceMA.com](http://www.MyInsuranceMA.com) (한국어 웹서비스)

2017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의료보험도 인상을 대체하는 보조물련**

Accident, Disability, Active Care  
사고시 의료보험과 무관한 혜택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컴 프로텍션 플랜  
암, 심장병, 뇌졸중 보험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플랜**

모기지 프로텍션 플랜  
학자금 저축 플랜  
무자상 없어 안전한 연금플랜  
Express Term Life  
Universal/Whole Life

[mlee@MyInsuranceMA.com](mailto:mlee@MyInsuranceMA.com)



Michael Lee  
National Fire Under License No. 1268127  
Massachusetts License No. 233482  
Licenses in Health, Life,  
Savings,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in process)

Health/Life/Disability/ Medicare/  
Disability/Long Term Care/  
Retirement/IRA Insurance Broker

Health Crossroads/MSA/USGS  
Approved Broker

MS, 모든 영미권(영국) 캐슬러 가입:  
ICM, F&W, HFC, M&W, H&W,  
Hydrex, P&N, NetNet, & etc

**978.314.8818** |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Angela Eleazar**  
617.319.6657



**Vicky Xiao**  
617.480.6362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 POSPay

worldpay

##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고객을 더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제귀 케이크
- 국내산 유아용품과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재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니덤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카운터로 일하실 분 구함.  
T. 781-854-2193

세탁소 프레스 하실 분(파트/풀 타임) 카운터 보실 분(파트/풀 타임)  
T. 617-955-7932

**세탁소에서 일할 분 구함**

렉시톤 소재 세탁소 클리너, 카운터 (풀/파트 타임)  
\* 영어 가능자 우대  
\* 주급 협상 가능  
연락처: 617-319-4134

**재택 간호인 구함**

한국어와 영어 가능한 재택 간호인 (HHA/CNA/nursing student) 으로 웨슬리에 거주하시는 박인순 할머니 돌봐주실 분 구함.

**모집조건:**  
- 연장자 케어 경험있는 분.  
- 본인 소유차로 의료 예약에 라이드 가능한 분.  
- 한국음식 요리 가능한 분.

좋은 보수와 더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

관심있으신 분은 로즈 앤(Rose Anne)에게 전화: 617-840-2123 로 연락 주십시오.  
\* 이력서 준비해 주십시오.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연합기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기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인민회	339-298-7187
세탁인민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육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0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주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글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833-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타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53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b>공인 회계사</b>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정진수회계사	617-792-2355
한미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골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위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b>가정의</b>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b>내과</b>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401-722-0305	
<b>산부인과</b>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b>소아과</b>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b>심리상담</b>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b>심리상담</b>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617-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b>재활의학</b>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키치소아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환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

# 지금,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 ... 중년 이후의 심장 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 될 수 있어
- ... 정기적인 건강 체크, 금연, 금주, 운동 등으로 예방해야

이번 주 휴랍 의료정보는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심장테스트를 통해 당신의 심장 상태를 예견해보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 10가지를 휴랍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려 한다.

## ◎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테스트 해보세요)

- ① 혈압은 얼마입니까?  
1점/120~80이하, 2점/130~80이상, 3점/140~90 이상
  - ② 운동은 얼마나 하십니까?  
1점/주3회이상, 2점/주1~2회, 3점/하지 않는다.
  - ③ 가족 중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습니까?  
1점/없다, 2점/있다, 3점/2명 이상
  - ④ 흡연을 하십니까?  
1점/3년 이상 금연, 2점/최근 끊었다, 3점/한다.
  - ⑤ 음주 횟수는 얼마입니까?  
1점/주1회이하, 2점/주2회 정도, 3점/주3회이상
  - ⑥ 음주량은 얼마입니까?  
1점/1~2잔이내, 2점/5잔이내, 3점/5잔 이상
  - ⑦ 음식의 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점/싱겁게, 2점/보통, 3점/짜게
  - ⑧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드십니까?  
1점/거의 먹지 않는다, 2점/주 2~3회, 3점/주 3회 이상
  - ⑨ 체중은 얼마입니까?  
1점/정상, 2점/살짝 비만, 3점/고도 비만
- [ 점수 합산 결과 ]

- ★ 14점 이하 : 이상 없음.
- ★ 15점 이상 : 식습관 개선과 운동 요망.
- ★ 20점 이상 : 정밀검사 필요.

◎ 심장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10계명 :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과 부정맥)은 주요 사망원인이다. 주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체크해보고 금연, 절제된 음주, 꾸준한 운동 등 좋은 생활습관으로 심장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① 금연 : 흡연은 동맥경화증 및 암의 주요 위험요소다. 하루에 반 갑 이상 흡연을 한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 3배 증가할 수 있다. 간접 흡연 역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2배나 높아지므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하는 것이 좋다.

②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 복부비만은 내장지방의 축적과 관련되어 인슐린의 기능을 저하시켜 당이나 지질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2~3배 증가시킨다. 복부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③ 규칙적인 운동 :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과 골격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좋은 자세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대사 기능 및 심혈관 기능을 개선해준다. 또한 혈압 및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다.

④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 :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 2~3회 이상(과일과 채소 각각 200g/일) 섭취가 권장된다.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하루 활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⑤ 염분, 단순당,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 :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을 촉진시켜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 과다한 당류 섭취는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이 되므로 설탕과 과당이 많은 음료수, 과자, 빵 등의 섭취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포화 지방산의 과다섭취는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⑥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섭취 : 등푸른 생선에는 EPA 및 DHA라는 오메가-3 다가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1주일에 2회 이상 생선 섭취가 권장된다. 또한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에도 오메가-3 다가불포화 지방산, 섬유소, 비타민 E, L-아르기닌 등의 좋은 영양소가 있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⑦ 음주는 하루 2잔 이내 : 지나친 음주는 간과 위장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심근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중 중성지방을 상승시키고 칼로리 섭취의 증가로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술의 종류에 따른 술잔으로 2잔 이하면 적당하다. 여성의 경우는 1잔 이하, 체구가 작은 경우라면 더 줄여야 한다.

⑧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멀리할 것 : 수면은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준다. 수면의 양뿐 아니라 질적

로도 좋은 수면을 취해야만 한다. 수면 중 무호흡증 등과 같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적게 되면 심혈관계와 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수면이 권장된다.

⑨ 공해를 피하라 : 미세먼지는 동맥 내막을 비후시키고 혈관 및 자율신경계를 손상시켜 심장마비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와 공해에서 벗어나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며 정신건강에도 유익하다.

⑩ 정기적인 건강검진 :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의 이상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통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종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통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검사 (\$200/정, \$3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이치,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am  
일(Sun) : Closed



# 빅뱅, 11년 흘러도 변함없는 가요계의 빅뱅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그룹 빅뱅이 컴백했다. 차트 올킬을 예상된 수확이었다.

빅뱅은 13일 0시 정규앨범 'MADE THE FULL ALBUM'으로 돌아왔다. 더블 타이틀곡 '에라 모르겠다'와 'LAST DANCE'가 함께 공개됐다.

이 외에도 신곡 '걸 프렌드'를 포함해 올해부터 하나씩 베일을 벗었던 'M.A.D.E' 시리즈를 포함한 11곡이 정규앨범에 함께 담겨있다.

'에라 모르겠다'는 힙합을 베이스로 한 빅뱅 고유의 컬러를 느낄수 있는 곡이다. 유틸리티 있는 가사와 빈틈없이 채워지는 사운드 속에서 빅뱅 각각의 개성이 곳곳에 묻어난다.

'라스트 댄스' 역시 그동안 빅뱅이 앨범을 통해 꾸준히 보여줬던 슬로우 템포의 감성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더블 타이틀을 포함한 신곡 '걸프렌드'까

지 3곡은 공개 되자마자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정상을 나란히 차지했다. 기대했던 만큼 기대감을 채우는 빅뱅의 신곡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다.

빅뱅은 11년 동안 기존의 음악 트렌드를 앞서나가면서도 대중성과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꾸준히 발표했다. 이에 따른 대중들의 호응 역시 언제나 뜨거웠다. 이번 앨범 빅뱅의 흔들림 없는 감각을 보여준다. 앨범의 작곡, 프로듀싱에 매번 참여했던 지드래곤의 건재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년 입대를 확정지은 탑과 현재 군입대를 준비해야 하는 다른 멤버들이 있는 상황에서 빅뱅은 완전체로서 올해의 'M.A.D.E' 시리즈를 완결지었다. 11년 동안 대중 안에서 가장 뜨겁게 가요계의 빅뱅을 몰고왔던 이들인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다시 내놓았다. 이제 당분간 빅뱅의 시대의 서막이 올랐음을 부정할 수 없다. reddgreen35@news1.kr



# '푸른바다' 전지현, 인간도 힐링하는 인어크러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푸른바다의 전설'의 전지현은 세상에 위로와 웃음을 주는 힐러였다.

심청(전지현 분)은 지난 14일 밤 10시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9회에서 허준재(이민호 분)로부터 좋아할 계획이 생겼다는 고백을 듣게 됐다. 점점 쌍방향 화살표가 돼가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장이 굳어버리고 마는 인어의 삶에 희망처럼 다가갔다.

하지만 청이 역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존재를 비롯해 많은 인간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돼주고 있었다. 특히 그는 유년시절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준재의 마음을 녹이며 그동안 쫓고 있던 상처를 어루만졌다. 이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인어의 순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준재에게 닿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청이는 서울에 와 처음 사귀 친구인 유나(신린아 분)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원더우먼처럼 나타나 도와주곤 했다. 또 예측 불가한 모습들로 감정 표현과 말이 없던 태오(신원호 분)를 웃게 만드는 등 그만의 걸크러시를 발산했고, 점점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갔다.

이처럼 청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 방울 날릴 줄 아는 통쾌함은 물론 슬퍼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다독이며 인어크러시 매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유쾌함과 진지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전지현의 열연은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려는 청이의 순수한 마음과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심을 표현, 보는 이들이 인어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 퀘벡시티...도깨비의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

(서울=뉴스1스타) 윤슬빈 기자 =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가 단풍 데이트를 나눈 장소는 어디일까?

tvN 드라마 도깨비의 인기 돌풍에 드라마 속 배경지인 캐나다 퀘벡시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퀘벡시티(Quebec City)는 '작은 프랑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유럽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드라마를 유심히 보다보면 바다에 둘러싸인 구불구불 골목길과 18세기 초에 지어진 파스텔톤 건축물, 꽃들로 장식된 창문과 개성 넘치는 간판 등 로맨틱한 퀘벡시티를 만날 수 있다.

드라마에서 두 배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중 하나가 페어몬트 샤프 프롱트낙 호텔이다. 세인트 로렌스 강이 내려다보이는 퀘벡시티 어퍼타운의 중심에 우뚝 솟은 샤프 프롱트낙 호텔은 청동지붕과 붉은 벽돌로 지어진 퀘벡시티의 랜드마크이다. 도시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건물로 퀘벡시티 여행의 기점이 된다. 극중 지은탁(김고은)이 편지를 넣었던 우편함이 바로 이 호텔 로비에 위치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 호텔은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왕비를 비롯해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묵어간 곳이다. 이 호텔은 호텔의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퀘벡시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로맨틱한 장소는 뽀티 샵플랭 거리이다. 김신(공유)이 문을 열고 나왔던 바로 그곳이다.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 퀘벡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가득 들어선 뽀티 샵플랭 거리는 북미

에서 가장 오래된 변화가로 로어타운 내에서도 가장 볼거리가 많다. 건물의 창과 상점의 테라스는 다양한 꽃들로 장식되고 상점마다 걸어 놓은 개성 있는 간판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지난다.

2회에 등장한 크리스마스 마켓인 부티크 노엘은 일년 내내 크리스마스 용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비롯해, 예수의 탄생, 장난감 병정, 기념품 등 다양한 컬렉션으로 가득하다. 2층에 올라가면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전구와 트리들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마켓을 한눈에 내려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겨울은 가을 못지않게 아름답다. 퀘벡시티에선 세계 최대의 겨울축제로 손꼽히는 퀘벡 윈터 카니발이 2017년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열린다. 스노우 래프팅, 눈 위에서 펼쳐지는 카약 경주, 눈썰매 대회, 개썰매, 빙판미니골프, 스케이트, 각종 콘서트, 빙벽타기, 눈마차, 스노우 배스, 화려한 퍼레이드 등 눈과 얼음을 이용한 온갖 행사가 열린다. 이를 즐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10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퀘벡시티로 몰려든다.

매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퀘벡시티에는 북미 유일의 아이스 호텔도 지어진다. 사방이 3,000㎡, 천장 높이가 5.4m에 이르는 거대한 눈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만드는데 자그마치 15,000톤의 눈이 쓰인다. 36개의 룸과 스위트 룸이 있으며 하룻밤에 최고 88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다. 투숙객이 아니라도 일반인에게 공개해 아이스호텔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

seulbin@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12월 5일 ~ 2016년 12월 11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8.3%
2	SBS	월화드라마(낭만닥터김사부)	21.6%
3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0.0%
4	SBS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17.4%
5	KBS2	해피선데이	15.5%
6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15.1%
7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4.8%
8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4.2%
9	KBS1	KBS9시뉴스	13.8%
10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13.3%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3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5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6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7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8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9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10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저 별	헤이즈
02	이 바보야	정승환
03	TT	TWICE
04	Decalcomanie (데칼코마니)	마마무
05	BERMUDA TRIANGLE	지코 (ZICO)
06	나비잠 (Sweet Dream)	김희철X민경훈
07	꽃길 (Prod. By ZICO)	세정 (구구단)
08	불장난	BLACKPINK
09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10	Stay With Me	찬열, 편지

## 숫자 퍼즐 (Sudoku)

		5		3			2	4
2							1	
		3		1	2			
4			2	8				6
		9	6	7	4	1		
6				5	3			7
			8	2		6		
	6							3
7	1			6		2		

12월 18일 - 12월 24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중심을 잘 잡아야</b></p> <p>●운수: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견줄 수 없게 됩니다. ●금전: 절약을 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미리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9, 24일 길일, 21, 23일 주의.</p>	<p><b>소띠   백문이 불여일견</b></p> <p>●운수: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훗날에 도움이 되는 인심을 얻게 됩니다. ●금전: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정:밖에 일만 신경을 쓰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합니다. 집안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체면이 손상되거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범띠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b></p> <p>●운수:상대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떠나는 돈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1일 주의.</p>
<p><b>토끼띠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b></p> <p>●운수:주위의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금전:일처리가 순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자금회전도 잘 되어갑니다. ●애정:떨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위와 함께 나눔만한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1일 주의.</p>	<p><b>용띠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b></p> <p>●운수: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상황들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전: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지혜롭게 피해야 하겠습니다. ●애정: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2일 길일, 18, 19일 주의.</p>	<p><b>뱀띠   환한 기운이 맴돌고</b></p> <p>●운수:힘들게 하던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환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는 매상이 증가하신 신이 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말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b></p> <p>●운수: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다. ●애정: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양띠   사랑이 쏠쏠 무르익고</b></p> <p>●운수: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화가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의욕이 샘솟고 능률이 오르면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얻는 것도 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원숭이띠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b></p> <p>●운수:모임이나 회식자리에 갈 일이 있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감정싸움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유리하지 않으니 피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닭띠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b></p> <p>●운수:언젠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하세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금전: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가까이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도 크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개띠   한 발 양보하고</b></p> <p>●운수:누군가와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본시 남의 손에 쥐어 있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서로가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돼지띠   충분히 누리도록</b></p> <p>●운수: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리 수 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금전: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지만 현상유지는 됩니다. ●애정:편하고 흔한 말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 마디가 더 와 닿게 해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1일 주의.</p>

## 현빈♥강소라, 열애 인정 조심스러운 이유

(서울=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배우 현빈과 강소라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연예계 활동에서 좀처럼 접점이 없다 느껴졌던 선배 배우 커플인 만큼, 이들의 교제 소식은 연예계 안팎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현빈과 강소라 양측은 교제를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유독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다.

현빈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 측과 강소라 소속사 플럼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열애설이 제기되자 "두 배우가 지난 10월 일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선배배로서 친분을 쌓으며 고민과 조언을 나누는 사이로 지나다 보름 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교제 소식을 전하게 돼 조심스럽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국에 개인적인 일로 소식을 전하게 돼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제 시작하는 두 사람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두 사람의 연기 활동에도 많은 응



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빈과 강소라가 열애설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이유에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영화 '공조'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빈은 내년 1월 배우 유해진과 호흡을 맞춘 '공조'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 '공조'는 현빈의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다.

홍보 일정이 오는 16일 열리는 '공조' 제작보고회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만큼, 영화보다 열애설에 더 큰 관심이 쏠릴까 우려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영화 외적인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제작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취재진의 열애 관련 질문을 피할 수만은 없게 됐다.

aluem\_chang@news1.kr



## '런닝맨' 김종국X송지호 하차 강호동도 최종 고사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김종국과 송지호가 SBS '런닝맨'에서 하차하는 가운데 강호동이 '런닝맨' 출연을 최종적으로 고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호동 소속사 SM C&C 측은 15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런닝맨' 시즌2 출연을 결심했지만 최종적으로 출연 제안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강호동은 지난 14일 '런닝맨' 출연 검토 소식을 알리면서 과거 'X맨'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유재석과의 재회 가능성을 내비쳐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런닝맨' 원년 멤버인 김종국과 송지호의 하차 과정에서 잡

음이 불거져 논란이 제기됐다. 7년 간 함께 해온 김종국이 방송국 측으로부터 하차 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다는 것. 심지어 송지호 측은 하차 사실을 보도를 접하고 나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호동 측은 "이번 상황의 세세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강호동의 출연 여부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뜻에서 아프고 죄송스럽지만 이번 출연 제안을 정중하게 고사하고자 한다"고 하차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aluem\_chang@news1.kr

## '한끼줍쇼' 이경규, 초등 생활기록부 공개 '말 많고 비협조적'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이경규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됐다.

이경규와 강호동은 14일 밤 11시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서 이경규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경규가 졸업한 초량 초등학교에 갔다. 이들이 들어서자 아이들은 환호를 보내며 환영했다.

교무실로 간 두 사람은 생활기록부를 확인했다. 각 학년 별로 열색이 좋지 않다는 말이 거둬해 있었으며

성적표에는 양과 가가 가득했다.

강호동은 또 '그저 놀이에 열중하고 규율 생활을 할 줄 모른다, 말이 많고 비협조적이다'고 적힌 기록을 읽으며 "항상 협조를 안 한다"고 꼬집었다.

ppbn@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OARDS - G.O.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생술집' 술 만난 토크쇼, ★ 진솔한 속내 보여줄까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tvN이 오랜만에 토크쇼를 선보인다. '인생술집'은 술자리에서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출발했다.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토크쇼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8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인생술집'은 술과 토크가 결합한 신개념 토크쇼다. 신동엽, 탁재훈, 김준현이 MC로 나서 스타들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다.

'인생술집'은 조진웅, 박성웅, 하지원 등 대형 스타들이 일찌감치 출연을 결정지며 기대를 모았다. 첫 회 게스트는 조진웅으로, 세트장을 벗어나 술집으로 꾸며진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최근 토크쇼보다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온전히 스타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술집'은 기존 토크쇼보다 한층 더 스타에 밀착된 토크쇼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인생술집'은 토크쇼의 기본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아이러니한 시도를 했다. 스타의 술자리를 지향하는 만큼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리얼한 상황을 만든다. 최근의 추세인 리얼리티 예능과 토크쇼의 적절한 배합으로 스타들의 솔직한 고백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reddgreen35@news1.kr



#### 티보플레이 12월 1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2	MBC	불어라 미풍아
3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SBS	우리 갑순이
5	KBS	빛나라 은수
6	SBS	사랑이 오네요
7	KBS	다시 첫사랑
8	MBC	행복을 주는 사람
9	SBS	사랑은 방울방울
10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 티보플레이 12월 1째주 신규 방송

1	CJ	인생술집
---	----	------

#### 티보플레이 12월 1째주 최신 영화

1	두남자	마동석, 민호
---	-----	---------

### 마동석X최민호 '두 남자' 베테랑과 유망주의 액션 대결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두 남자'는 마동석과 최민호 두 배우의 변신이 빛나는 영화다. 지독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며 관객들에 긴박감 넘치는 몰입도를 선사한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 속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을 담아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설명적이지 않은 감독의 연출 방식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주효했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마동석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 마동석은 자신만의 해석과 아이디어를 더해 입체적인 형식 캐릭터를 완성했다. 최민호는 따뜻한 눈빛과 강한 책임감으로 색깔 있는 진일의 모습을 탄생시켰다. 이들 대결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 성훈 역을 맡은 김재영은 모델 출신이지만 안정적 연기로 감독을 만족시켰다. 성훈은 극악무도한 행동을 일삼는 이른바 '금수저' 캐릭터다.

영화는 등장인물부터 배경까지 '사실적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 제작진들은 서울 도심 고갯에서 로케이션 촬영에 나서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두 남자'는 다양한 장소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심리 변화를 리얼하게 담아낸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품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 Health Insurance 4 오바마 케어 등록방법

의료보험 오픈엔롤먼트 기간이기에 많은분 들께서 전화로 문의를 하십니다. 개인으로 가입시 월납입금이 만만치 않기에 많은 분들이 MassHealth 또는 ConnectorCare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겠지요. 하지만 월납입금뿐 아니라 플랜 자체도 No Deductible 플랜들이기에 개인가입, 중년커플을 기준시 1,000불이 넘는 커버리지 혜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없으니 가입이 가능하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MassHealth와 ConnectorCare는 오로지 가족수 대비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정하고 안정된 샐러리맨들 보다는 개인사업자들께서 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샐러리맨들은 보통 고용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금보고와 비즈니스 세금보고의 유동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들께서 혜택을 받기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소득이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빈곤 레벨의 400% 미만일 경우입니다. 가족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에서 "2016 MassHealth Income Standards and Federal Poverty Guidelines" 을 검색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0% 레벨 밑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MaHealthConnector.org 에서 신청을 하고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다음 두가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등록 시 의료보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연소득을 묻지않고 생년월일등 개인정보를 등록한 후 바로 일반 의료보험 옵션을 보게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애매모호한 수입으로 400%가 조금 넘을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수입 외에 소비를 묻는 단계에서 일정하게 납입을 하는 부분을 넣으시면 총 소득이 내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의 Student Loan Debt, Monthly Car Payment, Mortgage Payment, Rental Payment 등이 있습니다.

### Premium, Co-pay, Co-insurance, Deductible, Out-of-pocket limit

지난 이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의료보험을 가입시 월납입금액과 커버리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에 그 관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차트를 보면 위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Premium은 월납입금을 말하고 프리미엄은 가장 저렴한 플랜부터 가장 비용이 많이드는 플랜은 두배, 세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의 정기검진은 별도의 지불 없이 제공이 되기에 정말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혜택만 필요로 하는 젊은 분들은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렴한 플랜은 Deductible을 먼저 가입자가 부담해야하기에 정기검진 외 기본 진찰과 기본적인 검사만 받더라도 높은 부담금, \$2000~\$3000정도의 금액을 의료보험의 혜택 없이 무조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격도 저렴하고 의료보험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지 말고 "Deductible then" 이라는 단

어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종류의 의료보험은 가입자에게 위험이 크기에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보험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방식은 코-페이(Copay)와 코-인슈런스(Coinsurance)가 있습니다. 물론 코-페이와 코-인슈런스의 숫자(금액 또는 퍼센테지)도 중요하지만 이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는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코-페이는 진찰/치료 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일반 진료 시 \$30, 또는 입원시 \$500 Coinsurance라고 하면 가입자는 정해진 30불, 또는500불만 지불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모두 커버를 하게됩니다. 반면 코-인슈런스는 퍼센테지(%)로 측정됩니다. 30%의 코-인슈런스의 경우 총 치료비의 30%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니 금액이 적을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치료금액이 높을 수록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코-페이 플랜에 비교를 하게된다면 위험성이 높아지기 됩니다. 비교를 하나면 모기지 이자율이 고정이라면 시세의 유동성과 무관하게 안정된 이자를 갖게 되지만 변동금리일 경우 이자율에 낮을시에는 유리하지만 높을시에는 부담이 커지는 위험성을 지내게 되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부분은 모두 가입자의 건강상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통상적으로코-인슈런스 플랜이 코-페이 플랜보다 저렴합니다.

디덕터블(Deductible)은 위에서 말씀드렸 다시피 치료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전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고 비슷한 개념의 아웃 오브 포켓 리밋(Out-of-Pocket-

Limit)이 있습니다. 디덕터블은 한 번의 치료에 해당을 하고 아웃 오브 포켓 리밋은 1년이라는 보험기간 동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최대의 부담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0 Deductible, \$6,000 Out-of-Pocket-Limite이라면, 2,000불 까지의 검사와 치료는 가입자가 먼저 부담을 해야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부분은 코-페이나 코-인슈런스로 정해진 금액을 가입자부담, 그 외 부분은 보험에서 지불을 합니다. 이 때 가입자가 지불을 하게 되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의 최고치 금액은 아웃 오브 포켓 리밋인 6,000불을 넘을 수 없게 되어 만약 이 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 그 외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기억해야하는 것은 아웃 오브 포켓 리밋은 매년 다시 시작을 하기에 보험사에 따라 조금의 유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말에서 다음연도 초까지 이어지는 검사와 수술이 있다면 조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는 의료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금부터 2017년 1월 31일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가입하거나 케리어 또는 플랜을 바꿀 시 1월 1일 부터 혜택을 원한다면 오는 12월 15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가입하거나 플랜 갱신 시 위의 내용을 참고로 커버리지를 꼼꼼히 살핀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커버리지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이슈에서는 Over-Insured in Health Insurance but Under-Insured All Others (의료보험은 필요 이상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그 외의 부분은 필요 이하로 가입되어있다)는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영킨 실타래풀기

세상의 모든 일들은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침에 계란프라이를 할 때면 종종 계란껍질이 프라이팬에 들어가기도 하고, 급하게 빨리 가야하면 신호등들은 모두 나를 안정 시켜주려고 빨간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나 계란껍질이 들어간 계란프라이도, 계속 걸리는 신호등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배경일뿐이다. 계란껍질 프라이가 사랑하는 딸이 처음으로 아빠에게 해주는 아침이라면,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운전 중이라면, 계속 걸리는 신호등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주택매매에 관여하다보면 술술 풀리는 경우는 더 더욱 없다. 홈인스펙션에 32항목이 지적되었다.

아는 바이어가 집을 사지 않으려고 심술부리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다른 측

면에서는, 이런 많은 지적사항에서도 바이어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셀러가 몇가지를 고쳐주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주택감정이 계약액수보다 무려 10% 낮게 나왔다. 바이어가 가격을 낮추려고 일부러 감정사와 싸고 낮게 산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바이어와 감정사가 그런 작은 액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바이어를 설득해서 제2의 감정을 받고,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래 계약액수로 매매되었다.

셀러가 세틀먼트를 2주일 늦추려고 했는데, 바이어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바이어가 셀러를 골탕먹이려고 심술부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이어와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새학군 전입에 지장있을까 걱정 때문이었다.

학교 전입담당자와의 이메일과 통화를 통해서, 1주일의 연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면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 시켜주었다. 물론 바이어와 셀러는 1주일 연기에 합의했다.

예연자가 알렉 산더 대왕에게 전설의 실타래를 보여주었다. "이 실타래를 풀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평정한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저없이 그의 검을 꺼내서 실타래를 내려쳤다. 알렉산더 대왕은 단 칼로 영킨 실타래를 절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주택매매계약이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계약과기라는 단 칼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면 인내와 두뇌가 필요하다. 거기에 하나 더, 무엇보다도 감정적 격동에 휩싸이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종종 알렉산더 대왕의 칼에 대한 유혹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끊긴 실타래는 바이어에게도 셀러에게도 더 이상 사용이 가능한 실타래가 아닌, 격한 감정의 부산물에 불과하

기에... 냉정하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풀린 실타래를 보면서 기뻐하는 셀러와 바이어의 미소에 감사를 느낀다.

###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7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떡가루처럼 뽀얗게 쌓인 눈을 보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한다. 온 세상을 누가 이토록 하얗게 만들어 놓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감동의 그 순간에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가 절로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들 말이다.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고 너무도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마는 것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작디작기에 그렇

길이 되어

멈추지 말고  
뒤돌아 보지 말고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하루를 살고.

산 넘어 산

끝이 없는 길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오늘을 살고.

보이지 않는 길  
마음의 눈으로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지금을 살고.

어제와  
내일 사이의 오늘  
길이 되어  
그대의 길에서  
순간을 살고.

다.  
크든 작든 모든 이의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며 삶의 끝은 깊고 좁기에 쉽지 않음을 안다. 그저 내 짐이 아니기에 가벼워 보일 뿐이다. 때로는 그것이 내 무게로 쏠리기도 해 속이 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로부터가 아닌 바로 내

가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옮겨놓다 그만 자신에게로 가져온 까닭이다. 누구를 탓할 이 유나 명분은 더욱이 없다. 다만 자신의 삶만 고달플 뿐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지 않은가 말이다. 모두의 삶이 같을 수 없기에 그 다른 인생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 삶이 편안해진다.

누구 때문에 사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다. 왜 자꾸 나의 삶을 다른 이와 비교해서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그것은 자신이나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적어도 부부의 인연으로 만났다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친지나 친구라 할지라도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마주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서로에게 무익하고 해가 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그 어떤 이유나 까닭이 없다. 물론, 서로에게 진정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우리는 삶에서 늘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멈춰 서서 머뭇거리게 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경

험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많이 달라지기도 하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던 그렇지 않은 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인생에 있어 후회의 횡수를 줄일 수 있으며 명치 끝 가슴 쓰림의 아픔도 줄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에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일의 미래가 있어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일로 인해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순간순간을 쉬이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결국, 우리의 삶은 순간을 잘살고 지금을 잘살고 오늘을 잘살면 후회를 줄이는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 훗날의 오늘이 바로 여기이고 지금이며 순간이라 생각된다. 그러니 먼 훗날만 계획하다 오늘의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이 그렇다. 가깝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하지 않기를 말이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집회는 축제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과학에서다. 예측한게 빗나간다면 설명해야 하고, 설명할 수 있다. 정치에서도 예상이란 말은 무성하다. 그런데 빗나간 예상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사회학에선 예측이 맞는다면 더 이상 연구과제가 아니다. 어려운 말만 가져다 붙이는게 그 사람들 하는 일이다. 대학 초년생일 때다. 사회과학 개론을 수강했다. 첫시간 교수의 강의 요점이다. 사회과학이 왜 과학이 될 수 없는가였다. 예로 보여주었다. 1948년인가? 트루만 대통령과 존듀이의 대통령선거였다. 개표가 끝나기 전, 시카고트리뷴 신문은 존듀이가 이긴것으로 일면에 인쇄했다. 트루만당선자가 신문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예측과 예상은 종종 맞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도 괜한 헛웃음만 나오는 건 막을수 없다. 꿈은 언제나 반대라고 했는데, 사회학은 꿈인가?

이번 미국대통령선거만 해도 그렇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가 이긴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개표초반 힐러리가 이길 수있는 확률이 99% 일때도 그랬다. 두어시각 흐르더니 50%로 급히 떨어졌다. 다시 서너시간이 흘렀다. 트럼프 후보자가 오히려 100% 확률로 당선되었다. 원 세상에, 이것도 과학이라고. 차라리 침대가 과학이다. 힐러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허망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학적 예측이 주는 허무함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황당하고 도무지 헛갈렸던 거다. 주최측은 100만이라 했고, 경찰의 추산은 25만이라 했다.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촛불군중이 모였는가 하는 거다. 숫자가 대중 어림짐작이라 해도, 비현실적이고 차이가 너무 난다.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 몇사람이 계산했다고 했다. 결론은 이렇다. 고정군중은 약 25만이

고, 유동인구가 75여만이니 함께 100여만 이다. 하긴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일시에 모이는건 쉽지 않을 거다. 한꺼번에 촛불들고 서있기에 너무 비좁다. 아무리 만원 전철처럼 서있는 다 해도, 밀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다. 유동인구는 화장실에 가야 하고, 김밥도 사먹어야 하며, 잠시 다리를 쉬게도 해야 한다. 날이 추운데, 뜨거운 커피라도 한잔해야 하지 않겠나. 숫자는 상징적이라 해야 할진대, 그만큼 절망감이 크다는 말일게다. 광화문 광장이 그닥 넓지 않다. 광장이 주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만 넓고도 깊다. 신문기자는 새로운 집회/시위/축제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럼, 그럼, 창조경제일 것이고, 문화창조일 진대, 시위문화도 급격히 진화되었다. 증산, 수출, 건설이었다. 문화를 붙여, 문화증산 문화수출 문화건설이 되고, 집회문화증산

집회문화수출 집회문화건설이 되어야 할 판이다. 진보되었고, 과학화된 집회문화는 수출할 수있을까? 그 노하우를 말이다. 애꿎은 문화만 덩태기 쓴다. 내가 축제문화라고 한마디 했다. 내게 광장은 축제를 연상케하고, 축제는 문화라는 말과 동떨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던 아내가 버럭 역정을 냈다. 그걸 어떻게 축제라고 하느냐 면박을 줬다. 머쓱해졌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내가 아니다. 돌아서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축제이고 문화이며, 과학이야.' 여전히 지구는 돈다. 또한 창조를 믿는다. 난 현명한 사람이다.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기간만은 피하자' (마태 26:5, 공동번역)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Super LCD Cluster Display, 10.25 inch touch screen

**MSRP, As shown, MS21329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099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160MPH ABS, 8-SPEAKER PREMIUM SOUND, 17" ALLOY WHEELS, 10.25" TOUCH SCREEN, 10.25" TOUCH SCREEN, 10.25" TOUCH SCREEN

**MSRP, As shown, MS211529**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8" 24-speaker surround sound, 10.25" touch screen, 10.25" touch screen, 10.25" touch screen

**MSRP, As shown, MS211997**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s,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60MPH ABS,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628**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ing Blind Spot Warning, 8 inch color touchscreen, Apple CarPlay, Android Auto, 17" alloy wheels

**MSRP, As shown, MS211378**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160MPH ABS, 8-SPEAKER PREMIUM SOUND, 17" ALLOY WHEELS, 10.25" TOUCH SCREEN, 10.25" TOUCH SCREEN

**MSRP, As shown, MS211800**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s,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60MPH ABS,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942**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driveprime.com**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1. 신앙과 축제 (2)

### 피요테 의식(Peyote Ceremony) 계속

담배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끔씩 빨아 줘야 한다. 다음으로 피요테가 든 통을 돌려 가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피요테를 조금씩 씹어 먹는다. 이 피요테의식의 주관자를 로드맨(Roadman)이라고 부른다. 담배를 피우고 피요테를 씹어 먹는 동안에 로드맨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사람씩 짝이 되어 한 사람은 워터 드럼(안에 물이 들어 있어서 보통의 북보다 더 깊은 울림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북)을 두드리고 또한 사람은 래틀(Rattle)이라고 불리는 방울을 흔들면서 기도문을 독특한 음률에 맞추어 읊조린다. 그러한 기도의 순서가 시계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고 피요테 씹기도 계속된다. 기도문의 내용을 다 알아 들을 수는 없어도 대체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본인과 가족과 친지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 같았다. 나머지 참석자는 밤새 의식을 계속하였지만 나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 티피를 빠져 나와 남



〈피요테 의식에 쓰였던 물북(water drum)과 방울(rattle)〉

지대의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그때까지도 의식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참석자 모두가 너무 멀쩡해 보인다. 피요테 효과 때문일까? 피요테는 멕시코 북부와 텍사스 서부 사막지역에 자생하는 피요테 선인장의 특정부분을 채취하여 말려서 만든 것으로서 환각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복용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인디언의 전통 종교의식 중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한다. 나도 조금은 먹어 봤지만 너무 적게 먹은 탓인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요테 의식은 코만치족(Komanche) 추장 과나 파커(Quanna Parker)에 의하여 1880년대에 창시되었는데, 미국정부가 인디언을 백인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댄스(Sun Dance)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 행사를 금지시킴에 따라 기독교 예배와 유사한 새로운 형식의 인디언식 종교의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체험했던 종교의식은 half moon방식의 피요테의식으로 불리는데 성경은 이용하지 않고 담배를 사용하는 종파인 데 반하여 크로스 파이어(Cross Fire) 또는 빅 문(Big Moon)으로 불리는 약간 변형된 종파에서는 성경을 활용하고 담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 망령 춤(Ghost Dance)

망령춤은 1889년 무렵 네바다 사막지역에 거주하던 파이우트(Paiute) 인디언 워보카(Wovoka, 뒤에 Jack Wilson으로 개명)에 의해 창시된 인디언의 신흥종교운동을 뜻한다. 원래 원형춤(Dance in a Circle)이라고 불리었는데 라코타족을 통해서 이 춤을 처음 알게 된 백인들이 애초에는 영혼춤(Spirit Dance)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망령춤으로 이름을 붙였다. 파이우트 인디언들은 워보카의 설교를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인디언 부족들은 워보카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구름처럼 네바다로 모여들었다.

망령춤의 교리는 기독교의 그것에 많이 닮아 있다. 망령춤을 계속 추며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은 자들도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창시자 워보카는 1889년 일식 때에 환영(Vision)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신을 만났는데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조들도 보았다고 한다. 신은 그에게 들짐승이 가득한 푸른 초원을 보여주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백인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디언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신은 또한 거짓말하거나 흠치 말고 열심히 일하여 의롭게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저 세상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다함께 모여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워보카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구세주임을 자처하고 동부의 최고지도자는 해리슨 대통령이나 서부는 워보카가 다스린다고 설교하였다.

라코타 부족의 경우에는 차는 곰(Kicking Bear) 일행이 네바다로 가서 워보카의 설교를 듣고 배워 와서 부족에게 전파하였다. 그 무렵 라코타족은 엄청 힘든 시련을 겪고 있었다. 부족이 소유하던 땅의 대부분을 백인들에게 빼앗기고 남아 있는 땅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었으며 들소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 미국정부로부터의 배급은 줄어들고 있었다. 종교는 원래 상처받고 외롭고 메마른 영혼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안을 주는 것일 진대 라코타의 경우 망령춤이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들불처럼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라코타에서는 본래의 교리에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다. 워보카는 백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였으나 라코타 버전은 앵글로 아메리칸(Anglo-Americans)들이 라코타의 땅으로부터 모두 물러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망령춤 운동은 백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디언 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에 대한 저항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라코타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어른들은 생업을 멀리하고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오로지 망령춤만 추는 지경에 이르자 백인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여 법으로 금지시켰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8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唵(1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고구려와 왜에 불모로 잡혀가 있는 두 동생을 데려오고자 하였다. 신하들이 삼랑주(현재의 경남 양산 지방)의 태수 박제상이 적임자라고 천거하였다. 그래서 박제상은 고구려에 먼저 가서 왕의 동생 복호(삼국유사에는 보해로 나온다)을 데려오고, 다음은 왜국으로 가서 작은 동생 미사흔(삼국유사에는 미해로 나온다)을 신라로 귀국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본인은 왜 왕의 분노를 사서 화형을 당했다. 두 사서에서 성이 다르게 나온다. 삼국사기는 박제상朴堤上으로 삼국유사에는 김제상金堤上으로 나온다. 삼국사기가 먼저 쓰여졌고 또한 열전에 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시조 박혁거세의 자손이며 파사니사금의 5세손이다. 할아버지는 아도갈문왕이고 아버지는 파진찬을 지낸 물품이다. 상당한 세력가의 후손임이 분명하다. 화랑세기(13세 풍월주 용춘 공편)의 기록에 의하면 박제상의 부인 치술이 실성마립간(신라 제18대왕)의 딸인 치술공주로 나온다. 삼국유사(권1 왕력1)에도 실성마립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실주왕實主王이라고도 하고 보금寶金이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미추왕 동생인 대서지大西知 각각이다. 어머니는 예생禮生부인으로 석씨이며 등야釐也 아간阿干的 딸이다. 왕비는 아류부인이다. 임진년에 왕이 되어 15년을 다스렸

다. 왕은 치술의 아버지다.” 여러가지 기록으로 볼때 박제상의 가계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정확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의 성이 박씨라고 사료된다.

‘장사택長沙宅’ 이 장사 벌지지나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택의 이름으로 봤을 때 박제상이 고구려에서 복호를 데려오고 나서 가족을 만나볼 틈도 없이 왜국으로 향한 곳이 망덕사望德寺 문 남쪽의 장사長沙라고 했으니 그 근처가 장사택의 소재지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경주 남천을 건너는 다리가운데 남산 자락에 자리잡은 화랑수련원으로 가는 다리가 ‘화랑교花郎橋’ 이다. 이 다리 근처 강둑에 ‘장사 벌지지長沙伐知旨’ 라고 적힌 비석 하나가 있다. 먼저 삼국유사(권1 기이, 내물왕과 김제상) 를 보면 “처음에 제상이 신라를 떠날 때 부인이 듣고 남편 뒤를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했다. 이에 망덕사 문 남쪽 모래사장에 이르러 주저앉아 길게 부르짖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그 모래사장을 장사長沙라 했다. 친척 두 사람이 부인을 부축해 돌아오려 하자 부인은 다리를 뺀 채 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을 벌지지伐知旨라고 한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오래된 뒤에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 딸을 데리고 치

술령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를 치술신이라 하는데, 지금도 그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다.”

이 작은 하천은 월성의 남쪽 남산 아래를 흐르니 남천이고 월성으로 흘러서 북천과 만나 형산강이 되어서 포항을 거쳐서 동해로 흘러들어간다. 당시 박제상이 왜국으로 갈 때 이용했던 수로이다. 그 남천변에는 예나 지금이나 긴 모래사장이 있다. 그래서 장사이고 ‘벌지지’ 는 왜국으로 떠나는 남편을 보지도 못하고 목놓아 울다가 쓰러져서 그만 혼절하고 육체적으로 경색되어서 ‘다리를 뺀 채’ 일어나지 못했기에 벌지지이고 이후로 사람들은 이곳을 ‘장사 벌지지’ 라고 불렀다. ‘장사’ 옆에 있는 망덕사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문왕5년(685년) 4월에 건립하였다. 박제상이 왜국으로 갈 때는 물론 없었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는 있었다. 또한 현재는 절터(사적 제7호)만 발굴(1969~1971) 복원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망덕사지의 당간지주(보물 제69호)도 함께 전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誕(탄)과 彈(탄)

2016년 12월은 성탄(聖誕)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彈劾)이 탄탄히 맞물려 온통 나라가 들끓고 시끄럽다.

탄핵 사유는 나라마다 정치제도와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남미권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도자를 탄핵을 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오랜기간 군부독재를 겪어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남미권은 헌법에 의한 정치 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

반면 민주주의가 안정되지 않은 틈을 타 야권 세력이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이 남용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닌 거짓말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당해 물러난 지도자는 없다.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에게 많은 힘과 권력을 실어 주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탄핵이나 하야라는 단어가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공감을 사는 것은 그만큼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여서다.

한국처럼 대통령에게 많은 실권이 쏠려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에선 대통령의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 질서 혼란 등을 막고 이를 저지른 최고 권력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정당한 헌법 절차이기도 하다.

탄핵이란 불명예 퇴진 앞에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혐의는 각각이며 취하는 자세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저리의 사체를 썼다는 이유로 물러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성(性)폭행 혐의로 징역을 산 대통령도 있다.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한 이가 있다면, 탄핵 절차 돌입 후 여론이 급격히 불리하게 흐르자 돌연 사이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버틸 만큼 버티다가 탄핵을 당한 사례도 있다. 탄핵 표결까지 갔지만 부결돼 기사회생한 지도자도 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탄핵안은 1998년 백악관 인턴인 도미니카 르윈스키와의 성(性)추문 사건과 관련한 위증과 사법 방해 행위 등 사유로 하원의 탄핵안이 통과 되었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는 대통령의 불륜에 초점을 맞추어 1998년 9월 대통령의 위증과 권력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의회에 보고했었다.

성탄을 뜻하는 誕(탄) 降 | 강신 : 탄생할 탄. ‘降 |’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온다는 뜻이어서 誕은 말씀(言)이 ‘위에서 밀 (땅)’으로 연장되어 왔다는 뜻.

예수 그리스도의 誕은 “마리아(Maria) 몸”에서 태어났으나 남편 요셉(Joseph)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聖靈)으로 태어났으므로 임마누엘(Immanuel).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 마태복음 1:23

따라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직접 땅으로 내려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것.

그러므로 성탄(聖誕)절은 말씀(言)은 하나님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 요한복음 1:1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려고 만드신 것.

해서 인간이 지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탄생한 것.

까닭에 태어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탄(彈) : 行丸 행환 : ‘탄자탄’이다.

말하자면 ‘총알’ 그 자체다. 해서 탄핵(彈劾)은 돼지처럼 욕심 많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뒷 거래를 챙기는 욕심을 ‘총으로 쏘아서 없애 버린다’는 청소를 뜻한다.

성경에서 딱 한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惡神)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탄주(彈奏)하니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 Whenever the spirit from God came on Saul, David would take up his lyre and play. Then relief would come to Saul; he would feel better, and the evil spirit would leave him. - 사무엘 상 16:23

이처럼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는 탄주역시 악령(惡靈)을 아낼 수 있는 탄주, 악령이 싫어하는 彈奏(탄주)로 쏘아대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다는 뜻.

성탄절이 탄핵으로 어지럽혀진 것은 어떻게 해결 되든지 그 결과는 탐탁할 수 없다.

이재선(57)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야권 대선주자 중 한사람이 이재명(52)성남시장의 친형이다.

이 지부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3명,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3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3월 야당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측근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과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관련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각결정 이유로 삼았다.

소추위원측이 문제 삼은 여타의 대통령 발언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문답에서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전의 일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 확인을 떠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비리사실을 지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경제과탄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관련 있으나, 규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며 탄핵을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경제와 국민수준이 더욱 선진화 되었으므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훨씬 앞설 것을 믿는다. 메리 크리스마스!

#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메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복-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골라온 섀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am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9)

뮤추얼 펀드를 떠나는 이유

모든 뮤추얼 펀드 광고나 안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Past performance does not guarantee future results." 한국말로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이것을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이 문구는 실제로는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 대부분은 미래에는 수익률이 형편없게 된다. (Strong performance almost certainly guarantees worse performance in the future)"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유망하다고 전망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1년 두 번 발표(S&P Dow Jones Indices)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때 높았던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통계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모든 뮤추얼 펀드 수익률을 발표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았던 탑 25%(Top Quartile)에 속했던 뮤추얼 펀드가 2년 후에도 탑 25%에 남아있는 뮤추얼 펀드는 단 7.33%라고 합니다. 이 말은 2년 전에 모든 뮤추얼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가 100개라고 가정하면 2년 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단 7개의 뮤추얼 펀드라는 뜻입니다.

\*큰 회사(Large Cap)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수익률 탑 50% 안에 5년 동안 남아 있을 확률은 겨우 3.7%이면 중간 회사(Mid Cap)는 5.79% 그리고 작은 회사(Small Cap)는 7.82%입니다.

올해(2016)도 8월까지 인덱스 펀드 수익률 보다 성적이 좋은 뮤추얼 펀드는 단 14%입니다. (Janus Deal Lifts Hopes for Copycats,

WSJ, October 4, 2016) 만약 여러분의 돈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었다면 무려 86%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제대로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20여 년 전부터 설명했습니다. 모든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년, 5년, 10년의 통계를 볼 때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15~20%뿐이라는 사실입니다. (Investing in Stocks Against the Indexing Goliath, WSJ, April 3, 2015)

재정설계사에게 "나의 소중한 돈을 수익률이 나쁜 확률은 80% 이상이고 경비도 많은 뮤추얼 펀드에 왜 투자하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변명이 공색한 재정설계사가 '자기는 수익률이 높을 뮤추얼 펀드를 선정해서 투자한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투자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도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삼자인 재정설계사

가 어떤 뮤추얼 펀드가 앞으로 탑 20%에 속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 맞게 선정했다고 해도 그 뮤추얼 펀드가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서 \$310 Billion을 꺼내어 인덱스 펀드에 \$409 Billion을 투자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Are Index Funds Eating the World?, WSJ, 2016년 8월 26일)이 말합니다. 10년 전 인덱스 펀드 투자는 투자 전체 중 20%였습니다. 2016년 7월 기준으론 42%로 상승했다고 모닝스타가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이나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돈을 남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혹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장전 (Bill of Rights)

225년 전 오늘인 1791년 12월 15일, 버지니아의 비준을 마지막으로 당시 미국 헌법의 처음 10개의 수정 조항을 담고 있는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이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권리장전 (수정헌법 1조~10조)의 내용은 연방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각 주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고 명시한 수정헌법 제 1조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으로,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식민지 시절 남부의 식민지는 영국 왕실의 영향이 컸던 만큼 성공회(영국 국교회)가 공식 종교였으며,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며 건설한 뉴잉글랜드는 청교도 외의 종교 및 분파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다. 즉, 그들의 종교에 한해서만 자유로웠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드러내고 있는 수정헌법 1조는 식민지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사회를 제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정헌법 1조의 다른 세부 조항 역시 식민지시대, 특히 독립 혁명의 전야에 있었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식민지 정부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저항이 격화될 수록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이 되었었던 것. 하지만 수정헌법 1조는 "자유를 보장한다"가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수정헌법 제 1조가 못박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기보다는 국가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도록, 즉 국가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다.

보통 "무기 소지의 자유"로 요약되는, 그리하여 전미 총기 협회 (NRA)의 든든한 아군이 되는 수정헌법 제 2조 역시 독립 혁명의 유산이다. 독립 전쟁 발발기, 식민지에는 정규군이 없었다. 즉, 자체적으로 조직한 민병대들이 전투를 치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정헌법 2조는 이렇게 기술된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 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게다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국토의 상당부분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개척지였던 만큼 개인의 안위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고, 따라서 개인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무기 소지를 하는 것은 다소 자연스러운 권리로 여겨졌다.

수정 헌법 3조를 탄생 시킨 맥락도 식민지시대의 경험이다. 영국은 1765년과 1774년 숙영법 (Quartering Act)을 통과시켜 식민지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숙박과 식사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했다. 그 논리는 영국군이 식민지의

보안을 위해 파견된 만큼, 그로 인한 비용은 식민지인들이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3조는, 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주인의 허락 없이 군인이 민간인의 주거지에 거처할 수 없으며, 전쟁시에도 법이 규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민간인 주거지를 점령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정 헌법 4조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불심검문 금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식민지 시절에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자유다. 독립 혁명 이전 시기, 식민지 상인들의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영국군은 불시에 상인들의 주거지를 수색했었다.

수정헌법 5조는 남북전쟁 이후 비준되는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심문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적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될수 없다)의 원칙 등도 수정헌법 5조의 내용이다. 수정헌법 6조와 7조, 8조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사절차상의 피고인이 배심원단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 배심원단에 의한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 보석금과 잔혹한 처벌을 금지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960년대,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가 있으며, 그 권리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러한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미란다 원칙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수정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던 적법절차의 원리에 기반한 것들이었다.

수정헌법 9조는 흥미로운 조항이다. "헌법에서 특정 권한의 열거는 국민에 의해 보류된 타인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도록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헌법상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국가나 의회가 가져갈 수 없다, 혹은 개인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인지는 여전히 애매한 문제이며, 수정헌법 9조가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각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권리장전을 비준하기까지 연방의 더 큰 권한을 주장하던 연방주의자들과, 각 주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던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진통 끝에 만들어진 권리장전은 독립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건국 작업을 마무리 짓는, 그리고 "합중국"인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세병원 완공과 함께 선조종합병원으로 새규모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내과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원 종합검진

-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의학의 검사(신체계측, 비전도, 사력, 청력)
  2. 흉부 검사(흉부방사선)
  3. 혈액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당화혈색소)
  4.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24시간 Holter)
  5. 소화기 검사(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담낭, 췌장)
  6. 초음파 검사
  7. 정밀 검사
  8. 부인과 검사(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수면 검사(만 50세 이상)
  10. 피부 검사(피부암, 흑색종 등)
  11. 노인 및 장애인 상담

### 남성 종합검진

- 남성 포함**
1. 흉부 방사선
  2. 정밀 검사
  3. 콜레스테롤 검사
  4. 소화기 검사
  5. 내과 상담

### 여성 종합검진

- 여성 포함**
1. 간헐적 소변
  2. 유방초음파 검사
  3. 유방 방사선
  4. 고혈압 검사
  5. 내과 상담

### VIP 입원 종합검진

-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1. 기본 신체계측(비전도, 사력, 청력)
  2. 흉부 검사(흉부방사선)
  3. 혈액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당화혈색소)
  4.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24시간 Holter)
  5. 소화기 검사(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담낭, 췌장)
  6. 초음파 검사
  7. 정밀 검사
  8. 부인과 검사(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수면 검사(만 50세 이상)
  10. 피부 검사(피부암, 흑색종 등)
  11. 노인 및 장애인 상담

### 남성 종합검진

- 남성 포함**
1. 흉부 방사선
  2. 정밀 검사
  3. 콜레스테롤 검사
  4. 소화기 검사
  5. 내과 상담

### 여성 종합검진

- 여성 포함**
1. 간헐적 소변
  2. 유방초음파 검사
  3. 유방 방사선
  4. 고혈압 검사
  5. 내과 상담

### 당일 종합검진

-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의학의 검사(신체계측, 비전도, 사력, 청력)
  2. 흉부 검사(흉부방사선)
  3. 혈액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당화혈색소)
  4.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24시간 Holter)
  5. 소화기 검사(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담낭, 췌장)
  6. 초음파 검사
  7. 정밀 검사
  8. 부인과 검사(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수면 검사(만 50세 이상)
  10. 피부 검사(피부암, 흑색종 등)
  11. 노인 및 장애인 상담

### 남성 종합검진

- 남성 포함**
1. 흉부 방사선
  2. 정밀 검사
  3. 콜레스테롤 검사
  4. 소화기 검사
  5. 내과 상담

### 여성 종합검진

- 여성 포함**
1. 간헐적 소변
  2. 유방초음파 검사
  3. 유방 방사선
  4. 고혈압 검사
  5. 내과 상담

### VVIP 입원 종합검진

-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TET CT)**
- 1. 흉부방사선 + 전신골밀도 측정
  - 2. 의료서비스(인원) 상담, 의료상담

###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 ~ 12:30pm (내과)
- 당일 종합검진: 1pm ~ 5pm (내과, 흉부방사선, 심장내과, 피부과)
- VIP 종합검진: 2pm ~ 5pm (내과, 흉부방사선, 심장내과, 피부과)
- VVIP 종합검진: 2pm ~ 5pm (내과, 흉부방사선, 심장내과, 피부과)



##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1:1 에스presso / 1:1 전사 체크 시스템
- ◎ 선진화된 종합진료 시스템 및 - 조기진단
- ◎ 검사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원내형 내시경 당일 검사 시행
- ◎ 전문 의료팀 주치의 교수와 시술 및 상담

### 기본검진 프로그램

- 총금 47만 원 / 보험 적용 : 12월 31일(토)까지
- |                          |                          |
|--------------------------|--------------------------|
| 남성                       | 여성                       |
| [50세 미만] — 55만원 — 49만5천원 | [50세 미만] — 59만원 — 53만1천원 |
| [50세 이상] — 67만원 — 60만3천원 | [50세 이상] — 69만원 — 62만1천원 |

### 숙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 총금 47만 원 / 보험 적용 : 12월 31일(토)까지
- |               |               |
|---------------|---------------|
| 남성            | 여성            |
| 480만원 — 432만원 | 500만원 — 450만원 |

### 정밀검진 프로그램

- 총금 244,711 원 / 보험 적용 : 12월 31일(토)까지
- |  |               |
|--|---------------|
| 남성   | 여성            |
| 1. 소화기검진 : 50세 미만 / 건강검진 + 의료 상담 + 100만원   | 110만원 — 99만원  |
| 2. 심장검진 : 50세 이상 / 건강검진 + 심장검진 + 100만원     | 110만원 — 99만원  |
| 3. 뇌검진 : 50세 이상 / 건강검진 + 뇌검진 + 150만원       | 154만원 — 138만원 |
| 1. 암검진 : 50세 이상 / 건강검진 + 암검진 + 200만원       | 220만원 — 198만원 |
| 2. 프리미엄검진 : 50세 이상 / 건강검진 + 프리미엄검진 + 300만원 | 320만원 — 288만원 |



개인의료사업장 김수남 대표이사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6년 12월 셋째주)**

● 시민권 신청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오는 12월 23일부터 대부분 모든 이민신청의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료 인상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대한 개정도 있게 됩니다. 12월 23일부터는 이 개정된 버전만 쓰셔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버전은 오는 12월 22일에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청서를 준비하신 분들은 12월 23일 이전에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새 버전이 나오는 12월 23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시려면 시민권 신청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 나와 있는 신청서에는 'Form N-400 09/29/16 Y'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버전은 오는 22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update 될 버전은 12/23/2016 이 우측 하단에 나와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2월 23일 이후 반드시 이 버전

의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작성을 어느 단계로 부터 받으셨다면 (시민협회 등 사회단체 등의 무료 시민권 신청 등) 이제부터는 이 도움을 준 단체의 이름 등의 정보 반드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들의 실제 서명 (손으로 직접한, Hand-writing) 도 있어야 합니다. 도장 또는 실제 서명의 복사본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 트럼프 당선자의 이민관련 내각과 입국 심사관들의 횡포

지난달 대표적 반이민자 중 한사람인 제프 세션스 알라바마 상원의원이 새 법무장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세션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 개혁의 대표적 반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남부사령관을 지내 온 켈리가 이민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경력으로 테러 위협

과 불법 이민과 싸울 적임자라는 낙점 배경이 있었지만 이 두자리는 직간접적으로 이민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자리이고 두 사람의 경력이 결코 친이민적이지 않다는 것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별써부터 이러한 반이민적 개각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입국 심사관들의 도를 넘는 입국 심사 행위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H-1B와 TN 비자 소지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을 토대로 앞으로 H-1B와 TN 이 없어질거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입국장에서 바로 항의할 수 있지만 미국 입국이 제일 중요한 비자 소지자들은 뭐라 항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입국 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기관 (U.S. Customs and Bor-

der Protection) 에 바로 하실 수 있고 (<https://help.cbp.gov/app/forms/complaint>) 보스톤 코리아나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 I-485

오는 2016년 12월 23일 부터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관련 신청서들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전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날 이후로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는 신청서에 신체검사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주가 걸립니다. 최근 이민국은 I-485 신청 시 신체검사서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차후에 추가서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12월 23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도 새로운 신청료를 내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 H-1B관련 새로운 규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7년 4월 1일 H-1B 취업비자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H-1B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H-1B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H-1B 신분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H-1B 신분 종료 후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아 짧은 시간 내에 스폰서를 구했다더라도 이미 이민법상 신분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 트랜스퍼

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엔 변경된 최종안에 의하면, 60일 유예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H-1B 소지자의 H-1B 기간(최장 6년, 영주권 신청과 같은 예외조항 제외)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 H-1B 종료 후 유예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의 노동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연방규정은 H-1B 소지자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고용주가 H-1B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승인된 근로시간, 업무, 급여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H-1B 소지자가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여 보복처원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H-1B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같이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군일 경우, H-1B신청인 본인은 라이선스가 없더라도 관련 면허를 소지한 상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라이선스 자격요건으로서 소셜번호 등이 없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인해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H-1B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대된 H-1B 관련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3일 전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이민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H-1B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H-1B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 내년도 H-1B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mailto: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http://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http://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http://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예체능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및 섬머,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 SAT 1,2 | AP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과목들  
개인 과외 및 스카이프 가능

###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 기간: 12월 19일(월) - 12월 30(금)
- 시간: 9:00am - 3:00pm

#### 1. SAT I New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과 실전문제 중심 위주 프로그램  
새로운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 방식 집중 공략

#### 2.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3. AP전과목 및 선행 학습과 개인 수업 과외

### 각종 경시대회 준비

1. 수학 경시대회 준비
2. 외국어 경시 대회 준비  
(Latin, Spanish, French)

##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